

밀 정

2015.07.14

0. 오프닝 - 비 오는 경성거리. 낮

인력거들이 줄 지어 경성의 고급 게이샤 집으로 들어온다.

인력거에서 내리는 일본 관료들.

내리는 족족 게이샤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들어간다. 방으로 들어서기 전 이 모임의 주최자인 매국 조선인 관료 하나가 비서에게 모든 인력거들을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방안에는 게이샤들의 노래와 연주로 이미 흥건한 술판이 벌어진 상태다. 비서, 방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인력거꾼들을 체크하는데 거리는 텅 비어있다. 비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위를 둘러본다. 그때 반대편에서 3명의 장정들이 비를 맞고 저벅 저벅 걸어온다. 비서, 이맛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다 느닷없이 기겁한 얼굴로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3명의 장정도 동시에 그를 쫓듯 뛰는.

우당탕탕 한 참 무르익은 술판의 흥을 깨트리며 비서가 뛰어 들어오는데 빗소리와 게이샤의 노랫소리 왈차지껄 떠드는 소리에 모두들 뒤늦게 비서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모두 일시 멈춤. 그때 갑자기 덜컥 문이 열리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장정들을 바라본다. 누군가 폭탄이다! 라고 외칠 때, 쿵쿵 벉락 치듯 한 소리와 화염이 붉은 뭉게구름이 만들어지더니 그새 시커먼 연기가 방안을 뒤덮는다. 동시에 비명과 아우성. 3명의 장정들 지옥을 방불케 하는 방안에 대고 총을 꺼내 무차별 난사하다가 급히 몸을 피한다.

어두운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피를 뒤집고 나오는 일본 관료들.

비는 더욱 억수같이 쏟아지고.

타이틀 “밀 정” 뜨고

1. 조선 총독부 경무국 ‘우마노 집무실’과 집무실 앞 복도 / 낮.

경무국의 긴 복도. 누군가의 발걸음.

긴 복도 끝에 있는 우마노 집무실 앞에 선다. 노크를 하면.

여비서가 문을 열어준다. 호출을 받은 히가시 경무국 부장이 안으로 들어간다.

경무국 국장인 우마노와 내무차관 사이토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다.

CUT TO.

사이토

(일) 총독부에서도 이번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가시 부장이 이번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히가시

(일) 잘 알겠습니다. 의열단은 그 어떤 조선의 무장단체보다 더 폭력적이고 투쟁적이지만 그래서 극도로 비밀스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일은 정보계통의 최고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두 사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마노

(일) 누구니까?

히가시

(일) 하시모토를 제계로 보내주십시오.

우마노

(일) 알겠소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사이토, 과자를 집어먹다 과자 부스러기가 옷 위에 떨어지자 살짝 짜증을 낸다. 잠시 시선을 빼앗겨 말을 잊지 못하다가.

히가시

(일) 이정출이란 조선인 일본경찰입니다.

우마노

(일) 조선인 일본경찰?

히가시

(일) 정보수집과 정탐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 올 자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마노

(일) 이정출….

2. 종로 효제동 골목 / 새벽

어슴푸레하고 적막하다. 골목길.

검은 그림자 하나 고양이걸음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와 어떤 한옥집 대문 앞에 선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사인을 보내고 카메라 그 시선을 따라 팬 하면 한쪽 골목길에 두개 소대쯤 보이는 일본무장경찰들과 경찰간부하나가 숨을 죽이며 그를 지켜보고 있다.

대문 앞에 있는 자와 시선을 교환하고 일본경찰간부가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골목길의 무장경찰들 일사분란하게 10열 종대로 모이더니 민첩하지만 극도로 조용하게 행군한다.

모든 길을 장악한 일본경찰들, 총칼로 무장한 채 한 한옥집을 포위하고 있다.

경찰간부 무거운 얼굴로 길 건너 한옥집을 보며 서 있다.

부하에게 무언가 지시하자 지시를 받은 부하, 확성기로 투항 하라고 외친다.

확성기 부하.

김상옥은 들어라. 너가 있는 곳은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 없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인기척이 없다 멀리서 개들만이 답을 해온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초조해지는 경찰간부, 그때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좌우로 갈라сь며 경례를 부치면 누군가 앞으로 나온다.

어둠 속에서 빛 안으로 들어오면 경부 이정출이다.

일본경찰간부 나카다

(일) 드디어 왔군.

이정출

(일)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찰간부 나카다

(일) 지독한 놈이야. 아직 버티고 있네.

이정출

(일) (피식 웃으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열단 핵심세력인데.

확성기경찰

(일) (표정을 읽더니) 다시 한 번 투항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경찰간부 나카다.

(일) 우린 그러는 사이에 일진들을 투입시키겠네.

이정출

(일) 히가시 국장이 생포하십니다. 내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올테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경찰간부 나카다.

지금 자네 나한테 명령하는건가?

이정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나카다를 한번 흘깃 보며 장갑을 낀다) 왜 내 명령이라 생각하십니까?
히가시부장님의 명령입니다.

이정출, 무리에서 빠져나와 김상옥이 숨어든 집 뒤쪽으로 돌아가 집주위를 둘러본다.
경찰간부 확성기를 든 부하에게 눈짓을 한다. 확성기를 든 경찰 앞으로 나가 다시 항복을 권고한다.
그 사이에 일진들 지붕으로 올라가 김상옥을 포위한다.

확성기 경찰

김상옥은 당장 무기를 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타앙!’ 한옥집에서 날아온 총소리와 동시에 확성기 박살나며 확성기경찰 뒤통수에 피가 튄다.
당황하는 경찰간부 나카다. 멀리서 총소리를 들은 이정출, 제기랄 하며 혀를 찬다.
나카다가 신호를 내리자 일제히 한옥집의 대문을 향해 총을 날리고, 총탄 소리에 별집이 되는 나무
대문.
이정출도 급히 총을 빼내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간다.

3. 한옥집 / 새벽

김상옥, 총알이 빗발치자 방 쪽으로 피신한다.
일진 열 명, 대열을 정비해 한옥집으로 다가간다. 소리 없이 지붕에서 지붕을 건너는 경찰들.
CUT TO.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에 움찔한 이정출 뒷마당으로 가로질러 뛰어가고 김상옥도 다른 동선으로
옆집으로 뛰어가고 지붕위의 경찰들도 담과 지붕사이를 건너뛰다.

이정출

(일) (경찰들에게) 생포해야 해!! 겁먹고 무조건 싸대지 말라고!!

옆집 처마밑 김상옥, 이정출 목소리를 듣고 혼잣말로 “ 이정출이 ... “ 하며 싸늘하게 웃으며 총알을
세본다.
일본 경찰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느끼고 처마밑에서 방 쪽으로 뛰어간 김상옥. 그러나 옆집 사람들은
방문을 잠그며 김상옥을 도와주지 않는다.
김상옥을 찾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경찰들. 처마 밑 문앞에서 완전히 노출된 김상옥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더 이상 총알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튀어나오며 지붕위로 총을 쏜다.
일본경찰 한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상대가 될수없다.
곧바로 일본 경찰들의 일제 반격이 시작되고 다리에 집중적으로 총을 맞고 만신창이가 되는 김상옥.
날아든 총탄 파편에 오른쪽 발을 맞는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양말을 벗어버리자 엄지 발가락 하나가 툭하고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나간 엄지발가락을 들어 바라보던, 김상옥 마당한가운데로 무심하게 툭 던져버린다.
-이정출, 옆집 담을 따라 뛰어가면서 지붕 위 경찰들이 총구를 향한 방향과 지붕을 건너가는 방향을
보고 대문 쪽으로 뛰어가면서 “ 생포해라 “ 라고 소리치지만 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다.
광 처마 아래에서 남은 한발을 확인하고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김상옥, 있는 힘껏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확 열어 제끼며 뛰어 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정출.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서로

멈칫. 그러다 고개를 올려 지붕위를 쳐다보면 지붕 위 일본경찰들은 이미 일제사격자세로 도열해있다.
다시 이정출을 바라보며.
이정출을 향했던 남은 한발을 갑자기 허공으로 올린다.

김상옥

대한독립만세!

일시에 지붕 위의 경찰들, 총에서 불이 뿜고 김상옥의 몸통은 별집이 된다.
이정출, 어금니를 깨문다.
급히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 죽음의 순간까지 방아쇠에 손가락을 결연히 걸고 있는 김상옥의 양 손.
이정출, 건조한 표정으로 김상옥을 바라본다.
맨발의 김상옥,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다. 이정출 두리번거리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도열해있던 경찰들 모두 차렷 자세를 하며 경례를 크게 부치면 히가시가 차를 타고 도착한다.
나카다 간부에게 김상옥을 생포하지 못하고 사살되었던 보고를 차 안에서 듣고 다소 허망해진 히가시, 차를 다시 돌리라고 기사에게 말한다. 차 출발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이정출을 바라본다.
이정출, 김상옥의 잘려진 발가락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 몰래 상옥의 발가락을 주머니에 넣는다.

페이드 아웃.

무지화면에 흥겨운 음악 흘러나오고 화면 밝아지면.

4. 종로 영생 사진관 / 낮

2층짜리 고풍스런 서양식 건물. 입구에 문패 두 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1층은 <영생사진관> 2층은 <동양고미술연구소>

1층 사진관 안에서는 한복 차림의 기생 셋이 사진 촬영을 앞두고 거울을 보며 ‘호호’거리고 있다.
작년 <조선미인보감>을 들고 사진사에게 이것저것 주문한다.

기생 1

이참에 여학생처럼 뽕프도어 스타일로 바꿔버리까.

기생 2

야야. 니가 상판이 하이칼라가 아닌데.

기생 3

올해는 국일관 애들보다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화장이안먹자) 이쁘게는, 엠병

기생들의 웃음소리 높게 퍼진다. 사진사 김학진이 촬영을 한다. 커다란 유리창의 덮개를 거두면 쨍한 햇살이 떨어지며 조명판을 대신한다. 그 빛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기생 1.

차심부름을 하는 어린 사환을 따라,

2층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고풍스런 도자기와 고미술품으로 꾸며진 동양고미술연구소가 나온다.

금테 안경에 양복을 입은 귀족적인 미학자 스타일의 김우진. 그옆에 그 이상으로 잘차려입은 친구 조희령이 책을 보며 앉아있다. 앞에 앉은 기생의 이야길 듣고 있다가 어린 사환이 건네준 차통을 받아 다기에 넣는다. 물러나는 어린 사환. 김우진 조희령에게 차한잔 하겠냐는 투로 고개를 돌리면 조희령은 괜찮다며 책만 들여다본다.

김우진

특별히 좋은 차가 들어왔다길래 구해오라 했소. 계속 하시오.

매향

글쎄 그 썩을 영감탱이가 여자보다 더 환장하는 게 조선백자라고.

인서트) 김항섭의 아흔 아홉 칸 대저택. 어둠 속에 노인네 김항섭이 매향이와 잠자리를 갖고 있는데. 매향이 실수로 장식장의 백자를 건드린다. 흔들거리다 깨질 듯 말 듯 하다 ‘쨍그랑’ 떨어지는 백자 순간 김항섭의 두 눈이 분노로 희번덕 뒤집어지고. 옷도 못 입고서 맨발로 쫓겨나는 매향.

김우진

저런. 여인네에게 그런 모독을.

매향

그 영감 오뉴월에 서리 맞아 죽으면 내가 뿌린 줄 아쇼.

김우진

어서 그런 날이 와야 할 텐데요. 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매향

조선 팔도에서 책이며 도자기며 팔아보려는 손님들이 그 영감탱이 마당에 줄을 서요. 영감이 눈에 들면 돈을 퍼 주니까. 조선은행 금고보다 그 영감 베개 밑에 현금이 더 많다니까. 돈 냄새에 골이 아파 잠이 안 와. 아 그런데 그날은 독일서 온 셰퍼드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데. 짖지를 않아 있는지도 몰라. 근데 살코기만 치먹는 걸 어찌 알고 독 묻은 걸 딱 준비해 갔을까나.

김우진

미리 다 파악한거구나.

매향

그러니까 김상옥선생과 주동성이가 김항섭 영감집 그 높은 담을 훌쩍 한숨에 넘어서.

플래쉬 컷.

거부 김항섭의 저택 / 밤

오싹한 느낌에 눈을 뜨는 김항섭, 먼전에 나무탈 가면과 눈이 마주치자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김항섭 옆에서 곤한 잠을 자던 매향도 기겁을 하며 일어나 탈의한 상체를 이불로 가린다.
가면을 벗으면 총총한 눈빛의 김상옥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뒤에 서있는 앓돼 보이는 주동성.

김항섭

뭣 하는 놈들이냐!

김상옥

안녕하시오. 대감. 서한을 받으신 거로 알고 있소만.

김항섭

경성바닥에 서넛만 모여도 독립운동한다 간판 달고 행세인데. 임정의 비선이랍시고 찾아오는
사기꾼이 어디 한 둘인지 알아. 니들을 뭘 믿고 군자금을 내놓아!

김상옥

저희를 그런 도적놈 취급하시면 섭섭합니다.

김상옥, 들고 온 나무상자의 보자기를 푼다. 상자 안에서 작은 금동반가사유상을 꺼낸다.
그러다 매향과 눈이 마주치면 .

김상옥

자네는 우리 얼굴을 모르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에 눈을 질끈 감는 매향.

김상옥이 꺼낸 반가사유상을 보는 김항섭의 눈이 번뜩인다.

김상옥

오래 찾으신 물건이라 들었는데.

김항섭, 탐욕스런 눈길로 반가사유상을 들여다보는데.

김상옥

대감은 소원하던 물건도 챙기면서.
조국의 독립에 정성도 보태시고.

김황섭 반가사유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만 덩석 손에 쥐지 못하고 대충 눈썰미로 훑어본다.

김황섭

가짜구만 지금, 어디에서 장난질이야?

김상옥

대감!

주동성

이 영감이 밤눈이 개눈인가.

김상옥 다시 한 번 김황섭에게 뭐라 말하려 할 때, 갑자기 밖에서 분주한 발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린다.

인서트) 집안으로 일본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당황하는 김상옥과 주동성.

김황섭도 놀라서 둘 사이에서 허둥대고, 매향은 아예 이불속으로 파고든다.

김상옥이 김황섭을 노려보자 김황섭은 자기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지체할 수 없음에 서로 눈으로 확인하며 문을 박차고 도망가는 김상옥과 주동성.

5. 경성 부촌 / 밤

담을 뛰어넘는 김상옥과 주동성. 전속력으로 달리다 양 갈래 길에서 나뉘는데.

주동성, 막다른 골목에서 쫓아온 일본경찰에게 곤봉 세례를 받으며 잡힌다.

김상옥은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달린다.

-다시 현재.

김우진 아래턱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김우진

순사들이 몇 시경 왔다고요?

매향

맹서방이 문을 열어줬는데.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들이닥친 거 같다고.

김우진

그 집에서 부른 게 아니고?

매향

몰랐대요. 아무도. 그게 말입니다. 요전에 000 폭탄투척사건 이후로 일본순사들이 그 배후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순사들이 바짝 쫓여놓으니까 분명 독립군들이 자금줄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고 시시각각으로 염탐한 거겠죠.

김우진 턱을 쓸며 곰곰히 생각에 잠기다가 매향에게 얻을 정보는 다 얻었다고 판단한 뒤. 슬며시
고개를 돌려 조회령과 시선을 맞추면 조회령도 작게 고갯짓을 한다.

김우진

(화장품을 꺼내서 준다) 상해 숙녀들은 요즘 다 이걸 씁니다.

매향

(화색이 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아이~ 우리 소장님 센스는.

김우진

(거절하며) 아아~ 선물입니다.

매향

(진지한 눈빛으로 두둑한 봉투를 내민다) 노잣돈은 보태야지요. (쓸쓸한 눈빛) 저희 큰오라버니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지금은 간도땅 어딘가 묻혀 있지만.

김우진

.....

매향

(울컥한 마음을 숨기며 판청) 향이 다르고만.

2층에서 매향이 인력거를 타고 가는것을 바라보는 김우진과 조회령.

김우진

정보가 어디서 새는걸까?

조회령

감이 전혀 안 잡혀. 주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지.

6. 경무국 취조실 / 낮

얻어 터져 피 땀이 된 주동성. 이정출이 들어오자 움찔한다.

이정출, 잠시 주동성을 바라보다 입을 연다.

이정출

주동성..... 명치정 양화점 사환이 언제부터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나.

주동성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김상옥이 좋은 물건을 김항섭에게 선보일게 있으니 주선만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갔던 것뿐입니다.

이정출

이전부터 김상옥을 알고있었지?

주동성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간 통성명만 있었지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정출 주동성에게 천천히 다가가 한 손으로 그의 턱을 들어 눈을 바라본다. 주동성의 뺨을 타고 핏자국이 한 줄 흐른다. 이정출 관상보듯 주동성의 얼굴을 살핀다.

주동성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는 ...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울음을 터트리며) 정말입니다. 제발.

이정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제끼 그냥은 안나올거 같은데.
조선놈들은 말로 하면 말 참~안들어.

이정출 손가락 사이에 박달나무를 낀다.

주동성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며 오열한다. 이정출 있는 힘을 다해 짚어 누르면 우두둑 몇 개의 손가락들 부러져나가고 주동성 찢어지는 기함을 지르며 의자에 묶인 채 펄쩍 펄쩍 튄다.

이정출

에에? 응? 아냐? ... 아닌가 보네. 에이, 하긴 너같이 족보도 없는 놈.
(손가락 사이에 낀 박달나무를 빼며)풀어줘.

주동성 일그러졌던 인상을 서서히 피며 고개를 들어 이정출을 본다.

이정출

(진심으로) 다음에 이 방에 오면 그때는 니 손목쟁이며 발목아지며 텡강 텡강 다 잘라버릴꺼야 .
그땐 팔 다리 없이 몸뚱아리로 굴러서 나갈 줄 알아.

누군가 주동성을 데리고 나가면 후배형사 오남원을 부르는 이정출.

이정출

나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는가 보자고.

7. 경성 뒷골목 / 낮

초췌한 물골의 주동성이 비오는 골목길을 비적비적 걷고 있다. 뒤따라 미행하는 이정출.

골목 끝에 서 있는 인력거에 김우진이 타고 있다.

김우진, 주동성의 뒤를 살피더니 앞에 있는 인력거꾼1에게 신호를 준다.

인력거꾼 1, 주동성의 앞을 막는다. 인력거꾼1이 주동성에게 뭐라고 하자 주동성, 급하게 올라탄다.

뒤에 오던 이정출, 주동성의 모습이 인력거 사이로 사라지자 재빨리 따라가는데.

이정출의 앞을 막는 김우진이 탄 인력거.

이정출, 앞을 보면 인력거 여러 대가 섞여있다. 이정출, 주동성이 탄 인력거를 뒤쫓는다.

이정출이 따라가던 인력거, 곧 멈추고 안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내린다. 낭패다 싶은 표정을 짓는 이정출.

8. 대장간 의열단 비밀 회합장소 / 초저녁.

의열단 비밀 회합장소인 효제동 대장간.

몇 명의 의열단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인력거단원 1이 다시 나와 눈짓을 하면 대장간에 있던 나머지 대장장이들이 동시에 쇠칼을 두들기며 혹시 있을 안쪽에 소리들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한다.

(내부)김우진과, 조회령 아까 인력거를 끌었던 단원 1, 2가 주동성을 둘러싸고 있다.

김우진이 매서운 눈빛으로 주동성을 심문한다.

김우진

그 지옥에서 말짱하게 걸어 나왔다.

주동성

정말로 이정출 그 조선인 경부가 그냥 풀어준 겁니다요!

김우진

이정출?

인력거단원1 박대이.

아까 그 놈. 고려공산당에서 잠깐 활동했었지.

임정에서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밀정질 하다 쫓겨났던 놈이야.

가끔 부탁하면 우리 쪽에 힘을 써주기는 하는데 믿을 수야 없지.
더구나 지금은 히가시 밑에 들어갔으니.

인력거단원2 오승련

임정에선 상옥이형이랑도 함께 일했다던데 그런놈이 상옥이형을
밀정짓으로 잡으려했으니 천하의 악귀같은 놈이다.

조희령

그럼 딱 나오네. 밀정이 새끼 밀정 풀어 준거네.

김우진

상옥이형 동선이 새 나간 것도 우리 쪽이었어.

주동성

전 진짜 아닙니다. 형님들!!

인력거단원2 오승련

엽전 한두 푼에 동포 피 팔아먹는 이런 새끼 초장부터 본패를 보여야..

주동성

왜 나만 의심합니까! 여기 다들 밀정 아니란 증거 있소!

그 한마디에 서로를 보는 단원들.

조희령,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주동성에게 다가오자, 주동성은 겁에 질리고.

조희령

그날 밤 김황섭한테 가는 건 우리 셋만 알고 있었어.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들이닥친 거야? 엉?

주동성

(우는 얼굴로) 억울합니다. 목숨 걸고 000 에 폭탄 던진 나입니다.
어떻게 절 의심합니까!

주동성은 겁에 질려있고 김우진 잠깐 동안 심각하게 생각한다.

김우진, 조희령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히자 조희령 슬며시 뒤로 빠진다.

김우진

넌 왜 풀어줬는지 알지? 바로 니 뒤에 따라 붙은 거 봤지?
당장 경성을 떠나. 살고 싶으면 우리한테도 그 놈들한테도 눈에 띄지 말아.

주동성 힘없이 흐느끼다가 천천히 일어나 김우진에게 나직이 입을 연다.

주동성

형님 ... 이 짓도 참 힘드오.

주동성이 터벅터벅 나가고

조희령

이정출이 꺼림직하네.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다른 때랑 다르네.

9. 경무국 히가시 집무실 / 낮

조선의 도자기와 고서, 그림들이 걸려있는 고풍스런 분위기의 집무실.

탁자에는 일본이 만든 한국독립운동인사 블랙리스트 장부인 '요시찰인명부'가 펼쳐져 있다.

김상옥이 서류에 '사망'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김상옥의 사진을 보는 이정출.

히가시가 들어오자 일어서는 이정출. 히가시, 이정출이 김상옥의 사진을 보고 있음을 힐끗 본다.

히가시

(일) 상해 임시정부 쪽과는 요즘 어떻게?

이정출

(일) 저번 공산당대회 때 총독부 통행증을 부탁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히가시

(일) 그래도 조선인 총독부 경부가 필요할 테니 다시 찾을 걸세.

(책상 뒤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꺼내며)

의열단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나?

(이정출, 대답 못하면) 돈의 흐름을 찾는 거야.

책상위로 김항섭의 집에서 거래한 금동불상을 내놓는다.

히가시

(일) 진품이더군. 놈들이 당장 쓸 자금이 필요했던 거지.

다시 상해 쪽 인사들과 접선하고. 경성으로 들어오는 돈줄을 파헤쳐.

새로운 조직들의 전모가 드러날테니.

이정출

(일) 네.

히가시

(일)김상옥을 생포했어야 했는데 이번 작전은 아쉽게 됐다. 자네를 빨리 투입했어야 했어.
(일) (김상옥의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였었다고?

이정출

(일) 아닙니다.

히가시, 이정출의 어깨를 다독인다. 둘이 있을 때 자상함을 내보이는 히가시.

히가시

(일) 하긴 이런 난세에 친구가 따로 있겠나.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이가 친구인거지.

#

몽타주 -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사 등의 건물을 배경으로 기생과 여학생, 또는 신사숙녀들의 사진을 찍고 있는 김학진.

10. 종로 영생 사진관 / 밤

새벽, 2층 현상실에서 사진사 김학진이 사진들을 인화하고 있다. 폭파 계획 장소인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사 등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김우진과 조희령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은행의 설계도를 보며 작전을 점검하고 있다.

김우진

만일에 대비해 한장씩 더 뽑았어 이것은 기차화물로 보낼꺼야.
원본은 회령이가 직접 상해로 가져가.
조심해라. 회령아.

조희령

(살짝 미소지으며) 상해에서 보자. 마무리 잘하고.

조희령 원본을 받아 챙겨 가방에 넣는다. 김우진과 악수를 한뒤 김학진에게 목례를 하고 사진관을 빠져나간다. 사진과 설계도를 동양화그림 뒤에 넣고 화구를 만들어 교묘하게 숨긴다. 화구를 포장한다.

11. 경성역 뒷골목 / 새벽

새벽녘. 안개가 피어오르는 역사 뒤편.
김우진이 포장된 화구를 끼고 역사 뒤흘 화물 싣는 창고로 간다.

창고에서 화물에 끈을 묶던 서진돌, 김우진을 발견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담배 하나를 물고 어디론가 걸어간다. 김우진도 서진돌을 따라 걷는다.
화물 창고뒤편 어딘가에 서서.

김우진

일단 이거 먼저 보내게.

서진돌

네.

김우진

이정출 알지?

서진돌

이정출 경부요? 예전에 회합에서 얼굴만 봤습니다.

김우진

어떤 놈이야?

서진돌

애매합쥬. 통역하던 가락이 있어서 이쪽 말도 잘 하고 저쪽 말도 잘하고. 통역을 잘한다기보단
사람들을 잘 엮고 마음에 들게 하고 자기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그래요. 설득의 명수쥬.
결국 자기 이롭게 하는 말인데도 남 설득하는데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돈은 꽤 밝힌다고
들었습니다.

김우진

돈 밝히면 애매할 것도 없어, 푼돈에 양심을 파는 놈들이어야 쉽지.
아참. 상해에서 손님이 올 거야. 잘 부탁하네. 조심하고.

김우진이 소리 없이 뜨면 그 자리에 포장된 화구가 놓여있다.

12. 명치정 여성 잡화점 / 낮

기모노 차림의 귀부인들이 아기자기한 소품을 고르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쇼윈도 밖에서 구경하는
이정출. 빅토리아풍 수입 그림엽서를 고르는 여자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후배형사가 가게에서 나온다.

후배 형사 오남원

주동성은 그날로 가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경성을 뜬 것 같습니다.

이정출

그 새끼... 심장이 그리 작아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놈을 어디서 찾는다..

후배형사 오남원.

근데 여기 상점 실주인이..... 조희주 셋째랍니다.

이정출

만석군 조희주? 그 집안에 아직 재산이 남았나. 학교 짓고 독립군 총탄 사는데 다 쏟아 부었는데.

후배형사 오남원

하나 남은 셋째가 수금하러 가끔 입경한답니다.
얼마전에도 왔었다던데 아직 경성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서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정출

이거 이거. 독립군이 급전을 땡기셨다.

후배형사 오남원

근데 자기 이름으로 챙기기는 뭐 하나까 친구 명의로 돌렸는데. 중산대학 동창이라고. 상해
쪽에서 고미술상을 하고. 그치도 가끔 물건 팔러 들어온답니다.

이정출

고미술상?

후배형사 오남원

네. 조희령이랑 소학교 동창이라는데. 종로에서 유명한 환쟁이 집안 아들이라고.
(vision)
(오남원의 말소리가 보이스오버로 들리고 화면은 영성사진관에서 김우진이 조희령에게 주동성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회상으로 나온다.)

김우진이란 자입니다. 친형과 함께 사진관과 고미술상을 한다는데 그 조희령이 김우진
부탁으로 주동성을 취직시켜줬답니다.

이정출

역시 돈줄을 잡으니 한 줄에 쪽 꿰어지는구만.
이거 한 꾸러미 나오겠네.

13. 일본경찰간부구락부/ 낮

고풍스런 건물에 오가는 경찰 간부들. 벽에 전시되어 있는 목검과 진검들.
무언가 보고를 할 게 있는 이정출. 두 남자가 대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찌렁찌렁한 남자들의 기합소리에 압도되면서도 한편으론 특유의 형식적인 동작과 소리에 머쓱해지는 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눈치다.
잠시 후, 시합을 끝내고 호구를 벗는 두 남자.
히가시와 하시모토다. 히가시 옆에서 웃는 하시모토를 보는 이정출의 눈빛이 질투와 경계심으로 반짝인다.
하시모토, 이정출에게 다가와 절도 있게 인사한다.

다과실. 벽면 장식장을 차지하고 있는 멋진 진검들.
차를 마시며 다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히가시.

히가시

(일) 이경부가 잘 도와줄 거야. 중국말도 상당하지. 내가 상해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정출

(일) 통 쓰질 않아서 잊어 버렸습니다.

히가시

(일) 실력이 어디가나.

하시모토

(일) 부럽습니다. 저는 영 실력이 늘지 않으니.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정출

(일) 통역을 잘하는 비결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시모토

(일) (웃음) 아.

히가시

(일) 앞으로 하시모토와 한 조를 이루게.

하시모토

(일)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출

(일) (당혹감을 못 감추고) 돌이요?

히가시

(일) 하시모토는 의열단장 정채산을 쫓고 있어. 정보를 다 넘겨줘.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정채산을 건져 올릴 미끼들을 만들어보게나. 새로운 소식은 없나?

이정출

(일) (히가시의 기대에 찬 눈빛에) 네. 의열단의 새로운 자금운반책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자들은 조희령 김우진 이란 자들로 지금 김상옥 이후, 새롭게 경성으로 잠입한 의열단 핵심들 같습니다.

히가시

(일) 같습니다라니... 확실한건가?

이정출

(일) 네. 확실합니다.

히가시

(일) 잘됐군. 친구로 할만한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이정출

(일) ... ?? 무슨 말씀인지 ...

히가시

(일) 이 일에 자네를 부른 이유가 뭐겠나.
조선인 독립군과 경무국 조선인 경부가 막연한 사이라... 재밌지 않겠나?
통행증을 부탁하든 재력가 소개를 부탁하든 다 들어주게.
지금 그들이 급한건 그런것일테니까. 베풀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있나.
자네가 먼저 접근을 해.
아마 그놈들 한바탕 혼란스러워하며 야단법석 나겠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가닥을 잡고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접근할걸세.

이정출

(일) 아! 알겠습니다.

히가시

일종의 카드놀이 아니겠나?
들어온 패는 다 보여주면서 손에 쥔 패 하나로 승부를 결정하는 거지.
부탁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이제부터 자네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온 거군.

조선인들은 특히 그렇지. 처음 조선땅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고리대금업자들 이었어.
둘 사이를 끈끈이 묶으려면 빛이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의 빛이면 더욱 좋지.
이경부가 그런 걸 참 잘해. 하시모토가 배워야 할 거야.

하시모토

(일) 네.

히가시

(일) 사자신중충. 사자는 제 몸 안의 벌레가 잡아먹어 죽는다.
조선은 이미 죽은 사자요. 조선인들은 그 살점을 뜯어 먹는 벌레들이지.
하지만 끝까지 죽은 고기는 안 먹겠다는 자들이 있어.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 기백을 반가워해야지.
치기도 전에 쓰러진 나라를 거저 주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시모토

(일) 네.

웃음을 나누는 히가시와 하시모토 사이에서 따라 웃지만 어쩐지 불편한 이정출.

하시모토

(일) 중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옵니다. 연계순이라고. 정채산의 비서역할을 하는 여장부입니다.

14. 성심 수녀원 / 낮

하시모토

(일) (소리)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자 얼굴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신출귀몰이라는데.
그 여자만 잡으면 꼬리가 아니라 모가지를 잡는 겁니다.

고풍스런 양옥 건물 앞에 인력거가 멈춘다. 유학생처럼 교복에 여행 가방을 든 연계순이 내린다.
서양인 수녀와 연계순의 시중을 들어줄 황서임이 연계순을 맞이한다.
여리한 모습 뒤에 예리한 눈빛을 감춘 연계순.

15. 영생 사진관 / 밤

문이 열리고 연계순이 들어온다. 김학진에게 목례를 하고, 김학진은 말없이 촬영 방으로 안내한다.
잠시 후 김우진이 들어온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 강렬한 그리움이 스치고.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려 애쓰는 김우진.

김우진

(나무라며) 이리로 오면 어떡하나.

연계순

경성도 많이 변했네요. 기억나는 곳이라곤 여기뿐이어서.....
준비는 됐습니까?

김우진

응 여기남아있어 상해는 나 혼자 갔다오면 돼.

연계순

혼자 가다뇨?

김우진

이제부터 빠지라고. 내가 운반해올 때까지 기다려. 너무 위험해.

연계순

지금 제 걱정해주는 겁니까?

김우진

(쌀쌀맞게) 니 걱정이 아니라 동지걱정이다.

연계순

동지..... (동지란 말이 섭섭한 듯) 동지한테 사진이나 한 장 찍어주시구려.

김우진

튼금없이.

연계순

직접 찍어준 적은 없잖아요. 한 장 간직하고 싶네요.

카메라 앞에 서는 연계순.

김우진, 사진 촬영을 한다.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짓는 연계순. 그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마음이 짝한 김우진.

갑자기 김학진이 들어와 당황스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본다.

김학진 뒤로 이정출이 웃으면서 서있다. 김우진은 누구지? 하면서 이정출을 바라보다

인서트) 인력거에 몸을 숨긴 채 목격했던 이정출의 얼굴.

이정출의 얼굴을 기억해내고 순간 놀라지만 눈치채지 못하게 호흡을 가다듬는다.

이정출

아, 나가있을까요 ?

김우진

아. 그게 아,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들어오시오.

연계순이 방에서 나온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인사를 하며 나간다.

연계순이 스치는 찰나.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보는 이정출.

이정출

이화학당 학생인가? 졸업사진 찍으러 왔나?

김우진

무슨 일로?

이정출

내가 불상하나를 얻었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정출 주섬주섬 들고 온 보따리를 풀자 불상하나가 나온다.

이정출이 내놓은 반가사유상을 보는 김우진, 긴장한다.

김황섭에게 팔려다 만 반가사유상이어서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얼른 표정을 감춘다.

김우진의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 이정출.

김우진 진지하게 고심하듯 품평을 내린다.

이정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진품입니까?

김우진

음 ... (미간을 찌푸리며 진지한 표정이 되어) 가짜요. 종로 곤도한테 가셨었구만. 아, 그
사기꾼.

하긴 나 같은 전문가들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지.

이정출

그래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받은 건데.

김우진

잠깐 기다려 보시오.

김우진 벌떡 일어서 구석 작은방으로 들어간다.

김우진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주변을 둘러보는 이정출.

고미술상 작은방, 각종 고미술품들이 잔뜩 들어차있다.

김우진, 긴장을 풀려고 차분하게 호흡한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흐른다.

김우진 작은방에서 다시 나오며.

똑같이 생긴 청자 두 개를 이정출 앞에 보여준다.

김우진

둘 중 하나는 이백년 된 거고 하나는 올 봄에 만든 거요.

이정출

에? 똑같아 보이는데.

김우진

상해에 내 의형제가 있는데. 깨진 요강도 삼백년된 황실 보물로 만듭니다.

이정출

뭐요? 여기도 사기잖아.

김우진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거고. 어찌 그 수요를 다 맞추니까.

이정출

돈을 긁어 모으시는구만.

김우진

긁어 모아서 언제 돈을 벌니까. 쓸어 담아야지 하하.

이정출

부럽습니다.

김우진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런 장사치를 부러워하십니까?

이정출

경기도 경찰부 경부 이정출이요.

이정출이 반응을 보려는듯 노골적으로 치고 들어간다. 순간 싸해지는 분위기, 김우진 마른침을 삼키며.

김우진

어이구. 제가 실수를 (명함을 건네며 꺾듯이) 김우진이라 합니다.
제가 몰라웁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독부 경부가 부러울 게 뭐 있으시다고.

이정출

녹봉 먹는 일이 재미랄 게 있겠습니까.

김우진

그래도 저 같은 보따리장수와는 비교할 순 없죠.

김우진, 이제부터는 담력 싸움 이라는 생각을 한다.

김우진

이경부. 혹시 상해 일본조계 경찰과도 연이 닿소?

이정출

!!!(이놈봐라 하는 표정으로) 뭐. 마음만 먹으면야. 저도 상해에 좀 있었습니다.

김우진

아하, 그래요? 그럼 혹시 부탁 좀 할 수 있습니까.
나 상해의 세력가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시오. 내가 불란서 조계를 휘잡는 독립군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장사치인데. 괜히 오해를 사가지고 물건도 뺏기고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정출

뭐, 술 한 잔 사신다면야.

김우진

카~ 고맙소. 이래서 뺏이 중요하다니까. 아깝네~~ 내 자본에 이경부 연줄이면.
이경부는 사업 생각은 없소?

이정출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혹 하는 눈빛) 진짜 쏠쏠합니까?

김우진

(금빛 시계를 흔들며) 허. 난세에 부자난다고.
어디, 진지하게 사업 얘기 좀 들어보시겠소?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밖을 보며 건너편 국밥집 술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걸 보더니 술 한 잔 생각 안 납니까? 하는 이정출의 표정. 그 표정을 읽어내는 김우진.

16. 선술집 / 밤

거나하게 취한 김우진과 이정출. 어느새 친한 척 말을 놓고서 술잔을 기울인다.

김우진

야. 이형한테 그런 곡절이 있었구만. 상옥이형이랑 저랑은 고향 선후배 사이고 이형과 상옥형은
임정때 단짝이셨고, 그럼 우리도 아주 연이 없는 사이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임정에서 통역
일을 하시다가 어쩌다 관운이 트여서 일본 순사가 됐을까나.

이정출

(사연이 있는 눈빛)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더라고..... 사내는 자기를 알아봐 주는 자한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인지라. 지금 히가시 청장이 불러서 완장도 차게 됐고..... 상옥이와는
상해에서 참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닮은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상옥이 발가락을 드는데..... 참 가볍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그래도 상옥이가 이 못난 친구한테 마지막에 의리를 지키겠다고.
내 손으로 잡지 않게 해주었으니.....

김우진

이 봐.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이 이래 감상적이야.
이형은 독한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딱 알아봤어.
내가 사람이건 도자기건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순사가 안 됐음 폐병쟁이 시인이 됐을 사람야.

이정출

(탄정 피우며) 처 드시오.

김우진

에이~ 안 되겠다. 마셔야겠다.
(빈잔에 술을 따르며) 나 오늘부터 형으로 부르께.

이정출

뭐 그러시던지, 그러지 마시던지.

김우진과 이정출, 친한 척하며 얼씨구나 술잔을 주고받으며 술잔 너머로 서로의 눈빛을 날카롭게
챙긴다.

17. 술집앞 / 저녁.

두 사람이 술집 앞에서 서로 손 인사를 나눈다.

비틀거리며 걷는 이 정출, 김우진도 똑 바로 서있지 못하고 휘청거린다.

이정출 휘청 휘청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골목길 코너를 돌아서면 정신을 차리고 김우진을 쳐다본다.

(콧노래는 계속 흥얼거리며)

김우진이 비틀거리며 사진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

이정출, 정신을 차리려고 가볍게 머리를 흔들고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간다.

비틀거리며 사진관으로 들어선 김우진, 역시 들어서자마자 이정출이 빠져나간 골목을 주시하다

커튼을 친다. 과음으로 속이 쓰린지 인상을 찌푸리며 뒤통으로 올라간다.

18. 영생사진관 작은방. 밤

김우진, 작은방에 들어가 모스 부호로 어딘가에 전문을 보낸다.

“ 이정출이라는 경무국 조선인 경부가 접근. 명치정 비선 노출됨. 지시하달바람 “

잠시 후, 답변이 내려온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상황 판단시 즉시 뜯 것”

19. 이정출 사무실. 밤

이정출이 자기 수첩에다 펜으로 한자 한자 입으로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적는다.

“ 보.통. 농.들이 아.님. 면.밀.히 주.변.자들의 동태를 파악해야함”

20. 만두가게 안 / 낮

총독부 여직원 김사희가 테이블에 앉아 만두를 먹고 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검은 장갑의 남자, 일어서며 총독부 여직원자리에 봉투를 놓고 간다. 여직원

김사희는 태연스레 봉투를 자기 백에 집어넣고 물로 입가심을 한 뒤 가게를 나선다.

21. 총독부. 경무국 / 낮

여직원 김사희 만두가게서 받은 서류봉투를 들고 이정출에게 온다.

김사희

김상옥이 경성에 들어와 몸을 숨기고 있던 장소들이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경성에 들어오면 이 루트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이정출

이건 이해선네 집이고.

김사회

이해선은 지금 서대문감옥에 있어요.

이정출

영생사진관 ... 하 이 자식, 내 그럴줄 알았어.

이놈이 몸통이야. 몸통.

이건 뭐지? 성... 심수녀원? 남자가 수녀원에 들어갈 수도 있나?

김사회

신부로 위장할 수도 있고 뭐 잡일 하는 사람은.

이정출

아 연계순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여직원을 보며)

너 이거 나한테 바로 가져오는 거지? 혹시 보여준 사람 있냐? 너 혹시...

플레쉬 백 :

김사회가 만두가게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김사회를 부른다. 돌아보면 하시모토다.

하시모토, 지금 나간 자는 자신의 정보원인데 무슨 첩보를 받은 거냐고 묻는다.

김사회, 그냥 일상적인 접촉이라고 넘어가려 했지만 하시모토가 이정출과 자긴 모든 걸 공유한다고

하자 김사회,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꺼내 보여준다.

봉투를 꺼내 읽는 하시모토.

이정출

하시모토 이새끼! 너 다음부터 그 자식이 뭐라 하든 무조건 잡아떼.

여직원이 네? 하는 표정을 짓지만 대답은 들을 새도 없이 후다닥 나가는 이정출.

22. 영생 사진관 / 낮

배달 온 국밥의 밥뚜껑을 열면 메모지가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읽고 있는 김우진.

김우진, 서둘러 사무실 안쪽 금고에서 돈과 권총을 꺼내 여행가방에 집어넣으며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23. 성심 수녀원 / 낮

수녀 한 분이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와 본관 앞에 내 팽개치듯 놓고 연계순을 찾는다.
건물안 접견실로 들어가면 몇 분의 수녀님과 연락책소녀 황서임이 있고 한쪽에서 외국인 고참 수녀분과 차를 마시던 연계순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아본다.

- 창문이 있는 작은 방에서 빠르게 가방을 챙기는 연계순.
-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연계순과 그녀를 수행하는 연락책소녀 황서임.

24. 용산거리 / 낮

연계순과 황서임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인력거가 연계순 앞에 선다. 황서임, 연계순의 가방을 인력거꾼에게 건네주면 연계순 황서임의 손을 잡고 몸 조심히 잘 있으라며 인력거 안으로 올라탄다.
올라탈 때 앞가림막 천 사이로 손 하나가 나온다. 그 손을 잡고 올라타면 안에 김우진이 있다.

연계순

무슨일이예요?

김우진

저번 김상옥형 일도 그렇고 너무 우리 쪽이 노출되고있어.

연계순

의심 갈만한 사람 있어요?

김우진

내 쪽에선 없어. 거긴 누구있어?

연계순

전혀요. 외부접촉이 거의 차단된 곳이니.

김우진

(얕은 한숨을 내쉬며) 뭐, 어찌됐던 경성에서 해야 할 1차 임무는 끝났어.
어차피 상해로 가야 해.

연계순

다시 돌아올 때는?

김우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지. (천을 들어 밖을 보고는)
난 여기서 내려서 다른 편으로 갈 테니 자넨 이거 타고 계속 가.

김우진 가방 하나를 들고 내리면 연계순의 근심 어린 표정. 내리면서 김우진의 손을 째 쥐어본다.

25. 총독부 경무국 / 낮

이정출, 히가시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서 얇은 한숨.

이정출

작작잠 하자.

하시모토

(고개를 들어 이정출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인지.

이정출

너, 왜 내 정보원을 터는 거야?

하시모토

개인 정보원정돈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출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서서)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한건지 알아?

겨우 놈들과 면트고 분위기 좋아지려는데 니가 막무가내로

덤벼드니까 애들이 겁을 집어먹고 모두 튜겨잖아!!

그때 히가시가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이정출과 하시모토 얼른 표정을 감추며.

히가시

(일)의열단이 다 빠져나갔다고 들었네. 어디로 간 것 같나?

하시모토

(일)제 정보에 의하면 상해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정출, 하시모토를 쳐다본다.

히가시

(일)웅. 그렇군. 상해로군.

(일) 그렇다면 자네들도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둘 다 놀란다.

히가시

(일) 하시모토 말대로 정채산이 상해로 들어갔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모두 상해로 모이는 모양이야.
(짧은 한숨 입맛을 다시며) 역시 정채산은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유명무실해진 의열단의 잔당들을 모아 그런 대담한 일을 해내는 거 보면.
그 미술상하는 친구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지?

하시모토

(일) 김우진은 오늘 오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출

(일)그게 ... 작전에 혼선이 생..

히가시

(일) 아마 어디서든 곧 자네한테 연락이 올꺼야. 자네의 힘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번째 패를 보여줄 때가 된 거야.
(호흡을 살짝 바꿔주며)
어차피 정채산이 없는 의열단을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김우진을 통해서 정채산을 찾아낸다.
한번도 만져보지 못한 포상금이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네. 물론 내 명예도.
상해로 출발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상해에 있으니까.

히가시의 기대에 찬 눈빛에 호응하는 이정출과 하시모토.

26. 기차 안 / 낮

달리는 기차 안. 김우진의 심각한 모습.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한 번 쳐다본다.
“모든 선이 노출. 어서 상해로 피하길. 하시모토를 조심“

27. 하시모토의 차 / 낮

하시모토가 운전하고 있고 히가시가 창밖을 말없이 내다보고 있다가 불현듯 입을 연다.

히가시

(일) 이정출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시모토

(일) 무슨 말씀이신지.

히가시

(일) 왜 조선인 밀정 출신을 내 밑에 두는지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나?

하시모토

(일) 잘만 쓰면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가시

(일). 그게 아냐. 이정출은 한때 밀정으로 오해 받고 갈 곳이 없었지.

이쪽에서도 조선쪽에서도. 그러다 내 계로 와서 빛을 봤어.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조선인 치곤 꽤 높은 자리지.

조선인 정보원들이 그를 따르는 건 다들 이정출처럼 되고 싶어서야.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충성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상징 같은 게 필요한 법이니까.

하시모토

(일)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히가시

(일)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하시모토

(일) 신의주 출신입니다.

히가시

(일) 아! 그렇지 자네 귀화한 일본사람이지? 깜빡 했네.

자네도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군.

하시모토

(일)아닙니다. 저는 워낙 어려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귀화한 이후로 저는 한번도 조선인이란 생각을,

히가시

(일)..... 자네나 이경부나 일본말을 잘 하기는 하지만 꿈은 조선말로 꾸지 않겠나.

재밌군. 조선인과 조선서 귀화한 일본인을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잡는데 쓴다는게...

뭐,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실력과 충성이 중요한거지.

하시모토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 듯 말 듯 온화한 얼굴로 본심을 감추는 히가시. 하시모토는 생각이 깊어지는 얼굴을 하고있다.

28. 상해 근처 야산의 공터/ 낮

운동장만한 야산속의 공터, 방공호같은 움막, 직 사각형의 가느다란 관측창앞에 사람들이 모여 건너편 가옥을 바라보고 있다. 단단한 체구에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남자, 의열단장 정채산. 심부름꾼 소년 선길, 살쥔이 같은 인상의 허철주와 거구 심상봉, 잘생긴 17세 소년 황의서, 그리고 정채산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매서운 인상의 밀정암살전문요원인 박포수. 그 옆으로 헝가리 기술자 루비크가 폭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옆에서 작업을 돕고 있는 연계순.

루비크, 작약 장치를 들어 레버를 돌린다. 펑, 소리와 함께 건너편 가옥이 불기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잔해가 움막의 벽을 치며 관측창의 유리를 흔든다.

폭발력 때문에 순간 고개를 돌렸던 단원들 천천히 상체를 피며 산산 조각난 건너편 가옥상태를 보고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박수를 친다.

29. 상하이 불란서 조계. 골동품 공작소/ 낮

밀수업자 창고 같은 허름하고 수상한 작업실. 허름한 노동복 차림의 김우진이 전보를 받고 읽고 있다.

이정출

(소리) 천진 출장 후 상해에 관광차 방문 예정. 마중 환영. 이정출.

이정출의 전보를 받아든 김우진, 대체 무슨 의종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연계순이 기쁜 얼굴로 뛰어 들어온다.

연계순

성공했어요! 정말 어마어마 했어요. 이전 것과는 비교 할수도 없어요. 그걸 봤어야 했는데.

정채산과 루비크, 심상봉과 허철주, 소년 단원 황의서, 그리고 정채산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박포수가 따라 들어온다.

문밖에서는 도리우치 모자를 쓴 정채산의 심부름꾼 소년 선길이 망을 보고 서 있다.
정채산에게 심각한 눈짓을 전하는 김우진. 연계순은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한다.

한쪽으로 가서 정채산과 상의하는 김우진. 이정출의 전보를 보여준다.

김우진

어떡할까요?

정채산

무엇 때문인 것 같나?

김우진

워낙 의문스런 놈이라서요. 그냥 움직일 놈이 아닙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것 같은데요.

박포수

이정출인 여기저기 붙어서 분란만 일으킵니다.

정채산

그래? 그럼 한번 봐야겠구만. 우리 말고 그 쪽도 분란이 필요할 테니.
양쪽으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분란으로 어느 쪽이 무너지나 보자구.

김우진

그런데 깨름직한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출처가 불명한 쪽지 하나를 받았습시다.
노출되었으니 상해로 피하란 내용인데 누군인지 어디선가 우리를 훤히 내다 보는 것 같았습시다.
상해로 피신하라는 정보를 받고 왔는데 마침 이정출이 상해로 온다는 전보를 받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시다.

정채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소.

만약 그 쪽지를 이정출이 보낸 거라면 이정출이란 자가 만만한 사람은 아닐겁니다.

아니면 경무국쪽에 우리쪽 밀정이 잠입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소.

아주 큰 직책은 아니지만 이 정도 정보는 빼낼만한.

(긴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여튼 그들이 나를 노리려는건지, 이번 작전을 파괴하려는건지, 무엇때문인지 알아나봅시다.

우리도 필요할때 써먹을데가 있을테니.

뭔가 한바탕 쏟아질 기세군.

하늘을 올려다보는 정채산의 얼굴에 땀이의 기차 들어오는 소리.

30. 상해역 / 낮

기차가 상해역사 안으로 들어온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 이정출. 짐을 들고 뒷자리의 하시모토에게 김우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 봐야한다며 나중에 여관에서 보자고 말한뒤 앞칸으로 간다. 하시모토 그런 이정출을 힐끗 바라보다 내린다. 창문을 통해 하시모토가 역사쪽으로 빠져 나가는걸 보고서.

31. 상해역 앞 / 낮

말끔한 모던보이 복장을 한 김우진, 굳어있던 표정이 이정출을 보자 갑자기 선한 미소를 띠우며 속을 감춘다. 역사에서 이정출이 나오는 걸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든다.

이정출

아 김소장~ 진짜 나와줬네.

김우진

당연히 나와야죠.

둘은 마치 우애 깊은 형제처럼 반갑게 만난다.

32. 역사앞 / 낮

김우진이 차문을 열어주면 기분 좋게 타는 이정출.

김우진을 보며 새삼스럽다는 듯 “상해에서 보니까 괜히 더 반갑고 그러네.”

김우진과 이정출의 차가 출발하면 그 뒤를 따르는 차.

김우진의 차를 미행하는 차를 미행하는 차. 그안에 박포수가 타있다.

차를 타자마자 또 다시 얼굴이 굳어지는 김우진. 이정출과 얼굴을 마주칠 때만 표정을 환하게 바꾼다.

이정출은 차창 밖의 상해를 구경하며 연신 “ 허 많이 바꿨네. 저건 그대로네 ” 하면서 오랜만의 상해에 대한 감회를 표한다.

창밖 상해풍경을 감상하던 이정출이 천천히 입을 연다.

이정출

나 순사직 고만 돌까봐.

남들은 출세했다 어쩐다 그러지만 남의 나라말 쓰는 사람들 밑에서 일한다는 게 그리 편한 게 아냐.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김우진

우리 형님이 이제 총기가 드시는 구만. 잘 생각하셨어요.

나라 팔아먹는 일이 잠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녹이 끼는 건 평생가요. 평생.

이정출

이 사람이 글썄 애초부터 내가 이 짓하고 싶어한 게 아니야. 이쪽저쪽에서 아쉬울 때만 불리
쓰고 그러다가 내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두 살아야 할거 아냐...
그래서 요번기회에,

김우진

그 뒷말, 내가 맞춰볼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상해 온
거지?

이정출

(화들짝 놀란 척) 아니, 뭐 이거 말도 다 안 했는데 알아들었어? 귀신이네 귀신.
어떻게 모찌떡 입천정에 달라붙듯해. 내가 전달력이 좋은거야?

김우진

사업은 자본이 반, 눈치 반 이렇게 하는 거요. 형.
내 그렇지 않아도 형님 이번 상해 코스에 제일먼저 도자기 공장으로 해놨어.
숙소에도 멀지 않아. 말 나온 김에 바로 갑시다. 공장으로.

33. 골동품 공작소 앞 / 낮

김우진과 이정출이 탄 차가 어느 골동품 공작소에 멈추고 두 사람이 내리면 이정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김우진을 따라 들어간다.
그들을 따라오던 차도 멈추고, 박포수의 차도 멈춘다.

34. 뒷골목 국수가게/ 낮

일본 정보원과 만나고 있는 하시모토.
뒷골목에 국수가게 앞 자판에 앉아 중국 군인들이 마작을 하며 노름판을 벌이고 있다.
마작판에는 판돈으로 내놓은 총알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한쪽 테이블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하시모토와 조선인 일본 정보원 하일수.
그 둘 뒤로 하일수의 심복 하나가 뒷골목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보원 하일수

(일)조선말이 유창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시모토가 고개를 끄덕거리면 주위를 둘러보며)
조선인 중에는 쓸 만한 폭탄기술자가 없습니다.

하시모토

있었다면 예전에 총독부가 날아갔겠지.

일본 정보원 하일수

총은 유대인 상인들한테 사고 탄환은 중국 군인들이 투전하느라 내놓은 걸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폭탄은 어렵습니다. 헝가리 무정부주의자들 중에 전문가들이 있고,
러시아에서 온 선수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외국인들 중에 조선독립을 돕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하시모토

왜지?

일본 정보원 하일수

나라 없이 정부를 차린 것을 높이 치지요. 임정에 가보십시오. 거지꼴을 한 자가 장관이고, 눈물
나 못 봅니다. 임정이 있는 불란서 조계 지역에서는 조심하십시오. 불란서 경찰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하시모토

밀정은 언제 만나게 해 줄 건가?

일본 정보원 하일수

경성에서 정보가 샌 일로 그쪽에서도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의열단 애들이 자기들 내부에 우리 쪽 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허투루 만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시모토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정출 경부 동선은 계속 따라 다니며 파악중인거지?

하일수

네 지시한대로 역부터 따라 붙고 있습니다.

35. 골동품 공작소 앞/ 낮.

이정출과 김우진이 공장내부를 돌고 나오면 공장주가 나와 이정출에게 도자기선물을 준다.
이정출, 너무 마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서 오히려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진다.
다시 김우진의 안내를 받아 차로 이동하는 두 사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하일수 꼬봉의 차 시동을 켜다.

36. 폭탄 재료상 / 낮

중국인 사장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일본정보원 하일수와 하시모토. 그러나 중국인 사장은 통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한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두 남자.

그러나 사장의 부인에게 뒷돈을 주고 정보를 듣는 일본정보원과 하시모토.

부인

(중) 최근에는 헝가리 혁명가란 놈이 자주 왔어요. 불란서 조계에 있는 약국에서 일하는데.

남편도 폭탄 제작에 관해서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부인이 동양여자예요.

동양여자란 말에 솔깃 하는 하시모토.

37. 불란서 조계 내 약국 / 낮

약국 안에 외국 부인들이 약을 사고 있다.

하시모토는 들어가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외국인 약사 셋의 얼굴을 매섭게 살핀다.

외국인 약사 1에게 헝가리인 약사에 대해 물어보는 하시모토.

아무 것도 모른 채 문을 밀고 웃으며 들어오는 루비크.

외국인 약사2가 웃으며 봉투를 루비크에 내민다.

외국인 약사 2

(영)놔두고 가셨네요.

즉각 눈치를 챈 루비크,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봉투를 들고 다시 나간다.

나가자마자 황급히 골목 옆으로 숨는 루비크.

안에서 이것저것 캐묻고 있는 하시모토를 본다.

38. 루비크의 숙소 / 낮

하숙집 주인에게 루비크에 대해 물어보는 하시모토와 하일수.

하일수

이미 짐을 뺐다는데. 부인은 중국말도 잘하고.

둘이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시모토

(생각하며) 눈치를 챈건가? .. 조선독립운동하는 애들 정보력이 이렇게 빨라?

하시모토 믿지 못하겠단 표정을 짓고 있을때 멀리 건물 건너편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루비크와 연계순.

39. 일본 조계 내 여관 /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고, 여관 앞에 이정출을 내려주는 김우진의 세단.

김우진

들어가 쉬시고. 내일은 불란서 요리나 먹자고.

이정출

한잔 하고 가지?

김우진

오늘은 여독을 푸시고.

김우진,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이정출도 선물받은 도자기를 끌어안고 웃으며 안으로 들어간다. 김우진, 이정출이 들어가자 표정 싹 씻으며,

김우진

새끼. 비싼 것만 쳐먹고.

김우진, 차에서 내린다.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며 담배 불을 붙인다.
어딘가에 있을 잠복해 있는 일본 정보부원들을 경계하는 김우진.
맞은편의 검은 차량이 수상해 보인다.
맞은편의 검은 차량에 하일수 꼬봉이 김우진을 주시하고 앉아 있다.
김우진,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하면 검은 차량이 따라온다.

40. 거리 / 밤

하일수 꼬봉이 김우진의 차를 놓칠세라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뒷차에서 클랙션을 울리며 불을 꺾찍이는 것 같아 잠시 백미러로 그 차를 보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다시 전방을 보는데 김우진 차가 사라졌다.
갈림길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옆을 지나가는 박포수의 차. 박포수, 꼬봉의 얼굴을 확인하며 지나간다.
멍한 표정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쿵!! 느닷없이 차 옆구리를 들이박고 십여미터를 엄청난 충격과 흔들림을 느끼며 밀려간다. 꼬봉이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릴 때 박포수가 뛰어내리며 꼬봉에게 다가간다. 꼬봉이 힘겹게 총을 들 때 획. 박포수의 칼이 꼬봉의 손목을 찌들

끊고 가슴을 파고든다. 박포수, 시체를 차에 싣고 차를 키 큰 갈대밭에 밀어 넣자 감쪽같이 사라진다.

41. 일본조계 내 여관 방 안 / 밤

하시모토와 이정출, 심각하게 회의를 한다.

이정출

아직 연기만 피우고 있어. 정채산은? 뭐 좀 알아냈어?

하시모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출

뭐야! 나는 지금 적진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는데.
김우진이 나를 상해 앞바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박으면 어쩌려고?

하시모토

미행을 붙이겠습니다.

이정출

정보가 들어오는 데로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자넨 뒤에 있지만 난 바로 눈앞에 적을 달고 다닌다고.

‘똑똑’ 노크 소리. 긴장하는 두 남자.

문을 열면 소년 사환이 “일본손님한테 경성에서 전화 왔어요”라고 말한다.

당황한 하시모토가 이정출의 눈치를 보며 나간다.

하시모토가 나가자 이정출이 사환에게 돈을 쥐어준다.

급히 하시모토의 재킷 주머니와 서랍 등을 뒤지는 이정출.

하시모토의 수첩에 정채산과 김우진의 사진을 본다.

귀공자풍의 외모를 가진 조희령의 사진과 이름도 있다.

이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이정출

여관 아래층 복도 끝.

하시모토가 여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모시모시 “

경성 이정출의 사무실 : 김사희, 하시모토가 전화를 받자 전화기를 내려놓고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린 뒤 손톱 손질을 한다.

전화기 안에선 하시모토의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는 소리만 들리고.

42. 의열단 안가 / 밤

루비크, 연계순이 정신없이 폭탄 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문밖의 인기척에 두 사람 멈칫한다.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는 연계순.
문을 열면, 정채산이 놀란 기색으로 들어온다.

연계순

일본인이 루비크 거처를 찾아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어요.

비를 맞은 김우진이 소년 선길과 함께 뛰어 들어온다. 순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김우진을 보는 사람들.

김우진

어떻게 된 거야?

연계순

뚱렸어요. 또.

김우진

뚱리다니. 무슨 소리야. 이정출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는데.

연계순

경성에서 온 일본인이 들쭈시고 다닌데요.
아마 이정출과 같이 온 자 같아요.

김우진

설사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그리 빨리 우리 선을 알아낼 수 있지?

박포수 들어오며

박포수

상해 정보원들을 잔뜩 쓰고 있어.
지금 자네 차를 쫓던 자를 처리하고 오는 중이야.

김우진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그렇담 이곳이 털리는 것도 시간문제네...
여기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일단 만주로 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채산

...적은 늘 우리 안에 있었고, 그 싸움 역시 전쟁의 일부요. 찾아내면 됩니다.

사이, 짐은 대충 다 옮긴 상황.

안가의 뒤꼍.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정채산과 김우진.

정채산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정출. 어디 친구할 만 합니까?

김우진

그자나 저나 낚시꾼이 던진 미끼인데 친구가 가당키나 한가요.

정채산

죽은 김상옥 열사한테 그 자 애길 들었소. 친구라고.

김우진

옛날 얘기겠죠.

정채산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도 사람도 없소. 그 미끼, 우리가 먼저 물시다.

김우진

.....

정채산

반간反間.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첩자 중에 제일 위험하지만 또 그만큼 쓸모 있는 게 반간이오.

김우진

.....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정채산

어차피 이리 저리 옮기는 게 그자들 특징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용해 봅시다.

김우진

아니면 어떡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정채산

이중간첩에게도 조국은 하나뿐이오.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빛이 있을 거요.

김우진, 불안한 눈길로 정채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쪽에 서 있는 박포수를 바라본다.
박포수도 이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느끼는지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으려고 시선을 피한다.

43. 일본 조계 내 여관 / 새벽

어스름한 새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이정출, 노크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데
문을 열면 어젯밤 그 소년 사환이 졸린 얼굴로 서 있다.

44. 여관 앞 골목 / 새벽

여관 뒷골목.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환을 따라가는 이정출.
골목 끝 어둠 속에 트럭이 보인다. 이정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뒷춤에서 총을 움켜쥐었다.
그런데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김우진이 기다리고 있다.
김우진, 어서 빨리 타라는 신호를 한다.

이정출

(조수석에 올라타며) 뭐야 꼭두새벽부터.

김우진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정출

이 새벽부터?

김우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이정출

일찍 일어나는 새는 제일 먼저 잡아 먹히는데.

김우진이 차를 출발시키자 웃으면서도 불안하게 창밖을 살피는 이정출.

45. 불란서 조계. 골목길 / 새벽

꼬불꼬불 미로 같은 골목을 익숙하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김우진과 뒤를 따르는 이정출.
김우진, 어느 허름한 주택의 뒷문으로 들어간다.

뒷문으로 난 부엌 식탁에 소박한 한식상이 차려져 있다.

이정출

키아. 된장 냄새~~

두 사람, 식사를 시작하고.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이정출에게 김우진이 심각하게 말을 붙인다.

김우진

형님. 형님이 나 좀 크게 도와야겠는데.

이정출

아, 돕는다니까.

김우진

나 지금 내 모가지 내놓고 말 꺼내는 거요.

이정출

겁나네.

김우진

네. 겁 좀 먹으셔야 하겠소. 이경부도 이제 모가지 내놓아야 하니까.

이정출

밥값으로 모가지를 내놓으라고?

이정출은 웃지만 김우진은 표정이 굳어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허름한 행색의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한 정채산이 웃으며 들어온다.

그 뒤로 호위하는 박포수가 살벌한 눈빛으로 따라온다.

정채산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누군가 하고 보다가 설마 하는 눈빛으로 변하는 이정출.

정채산

(손을 내밀며) 반갑소. 의열단장 정채산이요.

그안에 모든 사람들 일시에 얼어붙어있다. 이정출도 놀란 표정으로 한동안 미동도 않고 있다가 마치 잊어버린일 생각난 사람처럼 급하게 허리를 꺾어 정채산의 손을 두 손으로 잡는다.

CUT TO

잔뜩 긴장한 채 정채산과 마주 앉아있는 이정출.

정채산

고려공산당 시절 동지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경부한테 신세진걸 아직도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니다. 한번 꼭 만나고 싶어서 내가 소개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정출

(경직) 예에.

김우진

형 괜찮소? 흠모하던 여인을 만난 것처럼 양 볼이 발그스레하니.

이정출

(김우진을 노려보며) 영광입니다.

정채산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제가 이경부 아니면 경무국 경부와 어떻게 한 밥상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정출

그러니까 경무국 경부인 저를 어찌 믿고.

이정출, 속을 모르겠는 김우진을 날카롭게 찌려본다.

김우진

왜 날 찌려봐요. 난 별말 안 했어요. 단장님이 상해있을 때 애길, 어디서 들으신 거지.

정채산

자, 만리타향에서 동포들끼리 밥 한 끼 먹는데 이리 서론이 길어서야 쓰겠습니까.
어서, 드십시오~ 이런, 술이 없어서야 쓰나. 손님을 초대해놓고~ (나간다)

정채산이 나가자 이정출이 웃고 있는 김우진에게 불같이 화낸다.

이정출

헛. 나 부자 만들어주려고 작성한 모양이지? 최고 현상금이 달린 정채산을 떡하니 내놓고!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김우진

이형이 입정에서 밀정으로 모함 받고 쫓겨났단 내막을 들었지.
내 이형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동포 피를 빨아먹을 위인이 못 된다는 거에 확신이
들었거든.

이정출

어쭈. 니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김우진

왜.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를 때도 있는 거 아니요?

이정출

겁대가리도 없이. 어린놈의 자식이.

김우진

겁대가리 명줄이랑 같이 내려놓은 지 오래요.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할 때는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린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 감당이 안 돼?

이정출

당장 정채산을 없앨 수도 있는데.

김우진

어디 한번 그래 보시든가.

이정출, 순간 김우진의 패기에 주춤하는 사이, 정채산이 들어선다.

정채산

자, 한잔씩 합시다.

술독을 들고 있는 정채산 뒤로 소년 선길과 박포수가 쌀가마니 만 한 술독을 들고 비틀비틀 들어온다.
그 크기에 놀라는 이정출.

정채산

(이정출에게 술을 따라주며) 반갑소.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김우진 선생 말이 딱 맞군요.

이정출

저 인간이 뭐라 했습니까?

정채산

누가 봐도 가슴 뜨거운 조선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김우진

단장님은 항상 말을 듣기 좋게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어.

정채산, 김우진의 우스개 소리에 따뜻한 웃음을 짓는다.

정채산의 온화하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정출.

정채산, 이정출에게 술을 따른다.

정채산

오랜만에 고향 얘기나 하면서 실컷 마십시오.

김우진

근데, 우리 형님이 생긴 거와 달리 술이 약해서.

이정출

원소리 고만하고 잔 채워봐.

김우진의 약 올리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이정출.

이정출, 김우진의 술잔에도 술을 퍼붓고.

둘이 경쟁적으로 술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잠시 후, 거나하게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세 남자.

소년 선길은 문 밖에서 지쳐서 벽에 기대 졸고 있고, 박포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다.

이정출도 긴장이 많이 풀린 듯 취해있다.

김우진

사진이 돈이 되지 당연히. 나 아는 일본인 사진사가 안중근 의사 사진을 알음알음 팔아서 재미 좀 봤다니까!

이정출

안중근 의사 사진을?

김우진

나도 앞으로 그 장사를 해보려고.

앞으로 찍을 사진이 무궁무진하다니까. 김구선생 있지. 김좌진장군, 이동휘장군.

이정출

돈만 되면 다 하나. 이 사기꾼아.

김우진

내 밑에서 장사 배우겠다며!

이정출

어린 놈이 싸가지를 국 말아 먹었나.

정채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사진 한 장 박읍시다.

이정출

?

정채산

오늘 같은 날이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김우진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46. 불란서 조계 내 사진관 / 낮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건 정채산, 김우진, 이정출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선다.
카메라를 향해 웃는 세 남자. 사진을 찍어주는 중국인 사진사.
김우진, 이정출이 싫은 척 빼자 팔을 잡아당겨 둘을 카메라 앞에 세운다.
장난스러운 김우진 옆에서 참고 있던 웃음을 터트리는 이정출.

정채산

혹시 바다 좋아하시오?

47. 조각배 / 밤

작은 조각배에 쭈그리고 앉아 밤낚시를 하는 정채산, 김우진, 이정출.
여전히 술병을 끼고 앉아 있다. 김우진은 낚싯대를 들고 취해서 옆어져 있다.
나란히 앉아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정채산과 이정출.

정채산

나는 밤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이 차가운 암흑 한 가운데 떠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을 잊게 되니까요.

이정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정채산

그럼요.....

나는 나라 잃은 군인이요. 총알도 없고, 기댈 거라곤 제 한 목숨 던진 동지들뿐이 없소.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자신 있게 익힌 거라곤 사람에 대한 동물적 경계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될지. 누가 내 목숨을 이어줄지를 내 본능에 의해 결정하는 거지요.
이경부가 날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형이 조국을 영원히 등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니까요.
고향으로 오는 데 조금 먼 길을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정출

나는 녹봉이나 먹는 일개 경찰입니다.
눈앞에 이문이나 쫓는 놈입니다. 제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채산

이경부. (돌아보며 두 눈을 마주하고) 나를 지금 이 바다에 처넣으시오.
그게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오.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거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정채산의 눈빛.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정출.
숨 막히는 긴장이 흐르고.

이정출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채산

나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조차 믿지 못하겠소.
다만,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이정출

.....

생각에 잠긴 이정출.
여명이 밝아오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정출.
일렁이는 물결에 비치는 두 남자의 그림자. 이정출이 정채산에 무어라 말을 한다.
그들의 실루엣을 실눈으로 슬쩍보고 돌아눕는 김우진의 표정이 기대반 불안반의 복잡한 표정이다.

정채산

고맙소.

정채산, 시계를 풀어서 이정출의 손목에 채워준다.

이정출

.....

정채산

앞으로 내 시간을 이형께 맡기는 겁니다.

정채산의 말에 감동과 부담을 느끼며 바라보는 이정출.

48. 김우진의 차 / 낮

김우진에게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이정출.

이정출

내가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려 먹으면 어찌려고 이러냐?

김우진

총독부 정부가 의열단장 정채산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호형호제 했다고 동네방네 떠들면 누구
손해일까?

이정출

너 나한테 협박하냐?

김우진

왜 같이 온 일본놈이 밀정 얘기를 쏙 빼놔겠나. 지 혼자 해먹겠다는 거지.
이형처럼 이 쪽 저 쪽 기웃대다 끈 떨어진 뒤옹박 신세 되는 꼴 여럿 봤어.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그 놈이 상옥이를 팔아먹은 놈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놈을 살려둘 수야 없지 않아.

이정출

(김상옥이란 말에 흔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야.

김우진

정분 나는데 시간이 중요해요? 느낌이 중요하지.

이정출

나는 느낌이 안 온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하시모토가 일본 꼬나폴은 따로 만났다고!

김우진

도와주시오. 오죽하면 이럴까.
미치겠다니까.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의심 안 할 수도 없고.

이정출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김우진 눈빛이 딱하여) 어떤 자가 첩자 노릇을 하는 줄 알아?
절대 돈 때문이라고는 안 해. 이게 결국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말하지.

김우진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그런 말은 노출된 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숨어있는 밀정들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정출

아 드럽게 말 많네. 아니 나보고 뭘 어떡하란 거야?

김우진

하시모토가 접촉하는 밀정하나만 찾게해주세요 그 뒤엔 우리가 알아서할게.

이정출

내 동료 의 밀정을 팔아먹은란 말이나?

김우진

형의 밀정을 얘기해주진 않을꺼 아뇨.

이정출

난 니네 애들은 없어.
난 그냥 임정 동향이나 알아보고 그러다 김상옥이 벌린 폭파사건 때문에 이 일에 끼게 된 거야.
상옥이만 아니었어도 ... (얇은 한숨) 생각 좀 해볼게.
하시모토 정보원 찾는 정도야 뭐 그리 대수도 아니긴 하지만 ...
아 , 모르겠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니들은 경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김우진

(우물쭈물 망설인다) 형. 솔직히 아직 몰라.
최종 지령은 우리 모두 경성에 무사히 도착하면 그때 정확하게 떨어질 거야.
우리가 경성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암튼, 내 장담하께 형 곤란한 일은 안 생기게 할게.

이정출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거냐?

김우진

결정은 형이 하는 거지. 원망은 안 할 거야.
나나 죽은 상옥형이나..... 모두 반푼이들 일지도. 허나. 무덤 없이 구천을 떠돈대도.
나는 의리 없는 귀신은 안 될 테요.

이정출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다시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알았어?

말없이 이정출을 바라보다 차에서 내리는 김우진.

김우진의 걸기가 가슴에 박히는 이정출. 무거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49. 상해 거리 / 낮

이정출,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하나 꺼내 문다. 생각이 깊어진다.

조금 걷는다. 골동품을 파는 가게 앞에 선다. 그 앞에서 포효하는 박제된 시라소니의 사나운 표정을
뵈기 위해 서다.

서로 노려보듯 한참을 본다.

50. 일본 조계 내. 여관 / 낮

이정출, 상자에서 불상들을 꺼내 쪽 내놓으며 호들갑을 떠난다.

이정출

아주 공장을 차렸더라고. 다 가짜야, 가짜. 미친놈이 바가지를 씌우는데.
그 자식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김우진이 동경에 간다. 여행증을 부탁했어. 두 개.
누구랑 가겠나?

하시모토

?

이정출

당연히 정채산이지. 정채산. 김우진이 2인자였어. 내일 항구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서 통행증 만들어 갖고 와.

하시모토

확실합니까?

이정출

현상금 나 혼자 먹는다?

51. 일본 조계 내 여관 앞 거리 / 낮

하시모토 앞으로 2대의 차가 선다. 하시모토는 정보원 하일수가 모는 차에 올라타고. 뒤차에는 하일수의 심복들이 타고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트럭에 김우진과 박포수가 타고 있다.

박포수

애들이 생각한것보다 많은데 지원군을 부를까?

김우진

그냥 가요. 조용히 처리할테니.

근데... 우리 식구중에 밀정이 누굴 것같아요?

박포수

넌들 알겠냐? 알고 있었음 그냥 놔뒀겠냐?

김우진, 어두운 표정이 되어 뒤춤에서 총을 꺼내 총알을 확인한다.

52. 상해 영화스튜디오 / 낮

하시모토와 하일수 일행이 영화 스튜디오로 들어간다. 뒤에서 미행하는 김우진과 박포수.

김우진, 영화 스튜디오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믿기 싫은 얼굴이다.

하일수, 심복중 일부는 차에 대기 시키고 무장한 두명만 데리고 하시모토와 함께 스튜디오로 간다.

경극 영화 촬영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경극 복장을 입은 배우들과 스태프들 사이로 황의서가 도시락 심부름을 하고 있다.

물통을 들고서 돌아다니는 황의서에게 하시모토와 하일수가 다가간다.

하시모토 일행과 황의서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는 김우진.

하시모토와 황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황의서, 하시모토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하시모토는 차로 돌아가고 황의서는 물통을 내려놓으려 촬영장 한쪽으로 돌아간다.

세트 뒤로 급히 몸을 숨기는 김우진.

황의서가 김우진을 발견한다.

황의서

(무의식적으로 반갑게) 선생님.

김우진의 표정에서 사태를 파악한 황의서.
몸을 돌려 뒷걸음쳐 도망치기 시작한다.
김우진, 황의서를 쫓아가는데.
세트장을 헤집으며 도망가는 황의서.

김우진

의사야!

그 소리에 그들을 발견한 박포수가 황의서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하시모토도, 세트장 쪽에서 소란이 일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
도망가는 황의서 때문에 세트장이 무너지고, 김우진이 황의서가 뛰어가는 방향을 보더니 지름길로 뛰어간다.
그러다 모퉁이에서 딱 마주치는 두 사람 하시모토와 김우진. 김우진의 얼굴을 확인하는 하시모토.
김우진 순간 놀라지만 차분하게 중국말로 “ 실례합니다 “ 라고 말하며 먼저 자리를 피한다.
하시모토 고개를 숙이며 길을 내주면 김우진 그곳을 빠져 나오고 하시모토와 일행들은 의심없이 황의서를 흠어져 찾는다.

맹렬하게 달리던 황의서 세트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박포수가 앞을 막는다.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얼어붙는 황의서.
박포수가 뒤춤에서 무쇠 칼을 꺼낸다. 그것을 본 황의서, 얼어붙은 채 바지에 오줌을 찐다.
박포수 오줌을 싸는 황의서를 보고 멈칫한다.

황의서

아저씨….

박포수

눈감아. 다시 태어나면 좋은데서 태어나라.

무쇠 칼을 번쩍 들어 올릴 때 황의서가 눈을 깜빡거리며 박포수를 뺨히 올려다본다. 동시에 황의서의 목에 무쇠 칼이 내려쳐지고 무언가 날아가 벽을 맞고 튕긴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하일수 부하중 하나가 박포수가 있는 골목쪽으로 틀어 뛰어가고 그것을 본 김우진이 총을 꺼내 그를 쫓는다. 담벼락 처마 끝에 흘러내려온 천조각을 부욱 찢어 총을 감싼다. 하일수 부하가 황의서의 시체를 처리하고있는 박포수를 향해 총을 천천히 들어올릴때 김우진이 빠르게 다가온다. 인기척에 놀란 하일수부하 뒤를 돌아보지만 성큼 다가온 김우진은 그의 머리에 총을 박는다. 감은 천소리에 둔탁한 격발음이 울리고 하일수 부하의 머리통에서 피가 뿜어진다.
부하가 나가떨어지는 소리에 박포수 고개를 돌리면 김우진이 사람에게 총을 쏘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

다는듯한 표정으로 서있고 상황을 파악한 박포수는 하던일을 계속 한다. 어두운 골목 끝으로 질질 끌려들어가 사라지는 황의서의 두다리를 보며 김우진은 고개를 떨군다.

53. 의열단 안가 / 밤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김우진.

연계순이 무거운 얼굴로 들어온다.

연계순이 탁자에 내려놓는 황의서의 소지품들. 낡은 지갑 안의 빼죽 나온 매란방 사진.

플래쉬 백.

과거. 상해 영화 스튜디오 앞 / 낮

거지처럼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황의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로 차자 조선어로 ‘문둥이 새끼가.’라고 욕을 한다.

김우진이 황의서에게 다가온다.

길가에서 황의서에게 만두를 사주는 김우진.

황의서

(우적우적 만두를 먹으며) 매란방 같은 스타가 될 거예요. (짐 속에서 꼬깃꼬깃 매란방의 사진을 꺼내서 보여준다) 이걸 비밀인데요. 스타 돼서 돈 벌면 제일 먼저 차를 사고, 그 다음에는 독립자금을 댈 거예요.

김우진

네가 스타 되기 전에 독립 먼저 될 것 같다.

황의서

근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부름 할 사람 안 필요하세요?

똥똥하고 귀여운 황의서가 딱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웃으며 바라보는 김우진.

다시 현실.

김우진

청요리 배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인 녀석이었는데..... 원이나 풀었나.

고개를 숙인 김우진의 손을 잡아주는 연계순.

김우진

하시모토 그 놈은 그 애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뭘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 쪼그만 놈을 포섭할 생각을 했을까? 동전 몇 푼으로 구슬렸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의서란걸 알았다면 박포수와 함께 하는게 아니었는데...

연계순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박포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어쨌든 의서가 우릴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요.
큰일을 앞두고 하마트면 망쳐버릴 수도 있었던 건데 천운이 도운 거라 생각해요.

김우진

(힘없이) 하시모토를 어떻게 하까. 처치해 버리까?

연계순

난 하시모토보다 이정출이란 사람이 걱정돼요.

김우진

무슨말야?

연계순

하시모토는 확실한 적이지만 이정출은 뭐죠? 적이에요? 우리편이에요?
...난 솔직히 좀 불안하고 의심쩍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대개 결정적일때 배신하는 그런
부류잖아요.

김우진

우리 목숨 그자에게 맡겨질 만큼 중요한 정보를 준 것은 없어.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지. 의서일만 해도 이정출이 도와준거니까.

연계순

작은 거 내주고 큰 거 먹겠단 거겠죠.

김우진

우린 우리가 이용할 것만 이용하면 돼.
아무튼 끊임없이 살펴보고 끊임없이 주의할게. 항상 그래왔듯이.

연계순, 더 이상 말 시키지 않겠다는 듯 자리를 피한다. 생각이 깊어지는 김우진.

54. 상해 곳곳 / 밤

출정을 앞둔 의열단.

안가.

최종 폭탄 점검을 하는 루비크, 연계순.

대형 폭탄 10개, 소형 대추형 폭탄 30개, 술병형 폭탄 20개, 부속품과 폭발용 시계장치들, 뇌관들을 여러 개의 상자들에 조심스럽게 분배한다.

연계순, 여행 가방을 꾸린다. 드레스를 바느질로 수선한다. 모자 가방 안에 모자를 넣고 그 안에 소형 폭탄을 교묘히 숨기며 바느질로 꿰맨다.

김우진, 도자기와 금불상 등 고미술품 든 화물 상자 안에 교묘하게 대형 폭탄들을 숨긴다.

상자 문을 닫고 못질을 한다. '이륜양행'이라고 쓰여 있는 화물상자.

정채산, 박포수, 연계순, 루비크, 심상봉과 허철주가 한자리에 모여 김우진의 작전 계획을 듣고 있다.

김우진

잘 알겠지만 우리 목표는 이 폭탄들을 무사히 경성까지 가져가는 거다.

각자 폭탄을 나눠가진 다음 흩어져서 안동에서 만난다.

조회령은 안동역에서 합류한다.

중국 경찰들이 일본놈들 만큼 깐깐하게 굴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국경수비대가 있으니 각자 조심하길 바란다.

모두들 무사히 경성에 도착해서 마지막 합류장소에 모이면 그게 끝이야.

(김우진의 나레이션 사이에 몽타주 장면들)

집을 나서는 조회령. 누가 보더라도 부잣집 도련님이나 모던보이 차림새다.

짐차에 실려 가는 화물상자.

화물상자를 실은 짐차가 상해항에 도착하면 하시모토와 일본정보원 하일수 그리고 그의 꼬봉이 주변을 날카롭게 감시하다가 이륜양행의 화물상자를 발견한다. 짐꾼을 멈추라 하고 신분증을 보이며 화물상자를 뜯어내면 그 안에 잔뜩 감자만 들어있다.

진짜 폭탄이 들어있는 화물상자는 심상봉이 다른 짐차에 실어 나르고 있다.

김우진

루비크와 연계순은 부부로 가장하고 심상봉은 짐꾼 허철주와 나는 중국 노동자로 변장할거야.

각자 위장한 신분대로 사정에 맞춰 폭탄을 나뉘어.

자 그럼 모두들 흩어져서 무사히 안동에서 만나기로 하자.

모두들 묵묵히 듣고 있지만 결연한 표정이다.

최종작업으로 수백 장의 '조선혁명선언'과 '조선총독부 관공리에게' 등의 문서들을 곱게 태극기에 싸서 상자에 담는다.

정채산, 그것을 김우진에게 전해준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남자의 눈빛이 아련하게 반짝인다.

정채산

(뜨겁게 손을 잡으며) 곧 다시 봅시다.

김우진

네. 다녀오겠습니다.

두 남자, 마주 잡은 손을 한동안 놓지 못한다.

55. 골동품 공작소 앞 / 낮

이정출, 하시모토를 만나 화를 낸다.

이정출

어떻게 됐어? 김우진은?

하시모토

부두를 다 뒤졌지만 없습니다.

이정출

일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는 거야! 자네가 접촉한 밀정은 뭐래?

하시모토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내용을 잘..

이정출

그런 피래미같은 밀정을 두고 정보를 수집한단말야?

하시모토

물론 윗선이 있지만 노출되면 모든 작전이 망칠 것 같아서...

이정출

그럼 나한테 밀정 이야길 했어야지. 전략을 갖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잖아.

하시모토

(발끈해서) 그게 내 결정값습니까? 난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이정출

뭐?? (놀란다) 작전에 나를 빼라고 했던거야? 히가시의 지시야?

하시모토

최근 이정부의 정보에 대한 믿음이 안가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출

정보를 내가 만들어내?

하시모토

정보가 끊어지면 정보원들을 바꾸셔야죠.

이 정부의 어제 그 정보테로 움직였다가 우리 애들 희생이 어느정돈지 아십니까?

공작비는 어디다 쓰시는겁니까?

이정출

뭐야?? (배신감과 하시모토의 적의에 부르르)

그들 옆으로 차가 멈추면 하일수가 창문을 연다. 그의 흥분한 표정에 뭔가 싶은 두 남자.

일본 정보원

놈들의 동선을 알아냈습니다. 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하시모토

기차? 어디로 가는 거야?

일본 정보원.

각자가 퍼져있다가 안동에서 모여 경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출의 표정이 놀라서 굳는다. 하시모토, 도대체 어떻게 된 정보냐는 투로 이정출을 쏘아본다.

이정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썰게 나간다.

이정출

확실힌? 정채산이 목숨을 걸고 경성엘 간단 말야? 확실한 거야?

하일수

(약간 당황하며) 아 ... 정, 정채산이 함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출

뭐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채산인데 정채산이 함께 가는지도 아닌지도 모른단 거야?

하시모토

아는 데로 말해봐. 도대체 누가 경성에 가는 거고 정채산의 동선이 어떤 건지.

일본정보원

그러니까 ...아 ...내 정보원에 의하면 김우진 연계순 일당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가 신의주역에서,
아니 안동에 모여 경성으로...

이정출

차에서 내려서 똑바로 보고해 이 새끼야!!! 이 건방진 새끼가!!!

의열단의 내막을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일본 정보원에 말에 놀란 이정출, 느닷없이 무섭게 소리친다.

일본정보원 놀라서 후다닥 차에서 내려 이정출 앞에 부동자세로 선다.

이정출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잔당들이 경성에 가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해.
정채산이 어디로 간 거냐고!!!

하일수

그 ... 그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정출

누가 그 따위 정보를 너한테 준거야?? 응?

하일수

이번에 경성에 같이 가기로 한 일당 중에 한 명 입니다!!

이정출

!!

놀라는 이정출.

플래쉬 컷 : 어제 심각하게 차 안에서 나누던 김우진과의 대화. 이번 경성행은 의열단의 핵심들만 알고 있으며 모두 함께 내려간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정출

그게 말이 되나?? 핵심 단원이면 정채산이 어디로 가는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냐?

하일수

정채산의 동선을 미리 정확하게 체크하는 사람은 의열단내 아무도 없답니다.
항상 비선으로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의 움직임이 알려진다고 합니다.

이정출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하시모토, 이쯤에서 주요 정보원이라 노출할 수 없다며 이정출을 제지한다.

하시모토

알았어. 정채산의 행방은 다시 알아내도록 하자.
(정보원 고갯짓을 대답하고)
(이정출을 보며) 자 이러고있지 말고 우리도 서두릅시다.

이정출

만약 잘못된 정보면 어떻게해야? 우린 의열단 잔당놈들도 정채산도 다 허탕치고 복귀하게 되는 건데.

일본정보원

아닙니다. 의열단이 경성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시모토

뭐 그거 말곤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이쪽 첩보는 백프로 였습니다.
김상옥이를 잡은 것도 이자의 첩보였습시다. (이정출 놀라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채산 바로 턱밑까지 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자에겐 두둑한 보상이 갔겠지만.
이번엔 더 큰 보상이 따를 거라 해놓았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을 겁니다.
자 빨리 안동으로 갑시다.

이정출

...

56. 몽타쥬 / 밤

-염소를 실은 트럭의 짐칸을 얻어 탄 정채산과 선길. 박포수 험난한 그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바람이
세게 분다. 작은 염소를 품에 안는 선길과 그런 선길을 애써 담담히 바라보는 정채산. (밤)
-기차로 이동하는 루비크와 연계순. 아직 중국내 철도라 그저 단순한 중국인 복장. (낮) 그들
발밑으로 포장된 박스로 클로우즈업.
-밤낮없이 털털거리며 달리는 김우진의 차. 비포장도로에 잔뜩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있다 (

동틀무렵)

-말끔하게 차려입은 조희령, 승용차에서 내려 안동역으로 들어선다. (아침)

-기차안의 연계순, 창문밖으로 지나가는 역이름을 보더니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평범한 중국인복장을 벗고 얼굴에 색조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저녁)

57. 안동 역 / 낮

양산을 쓴 귀부인으로 변한 연계순, 귀족으로 분한 루비크의 팔짱을 끼고 역 안으로 들어선다.

짐꾼으로 분한 심상봉과 허철주가 조심조심 여행 트렁크와 박스들을 나른다.

연계순

(러시아어) 조심해요.

역무원들과 함께 화물칸에 박스들을 옮기는 심상봉.

역으로 트럭 한대가 들어오고 그 안에 허철주와 김우진이 타고 있다. 고미술품 운반하는 노동자로 변한 두 사람.

김우진이 봇짐 하나를 들고 차에서 내리면 허철주가 화물칸 쪽으로 트럭을 몰고 간다.

역 화장실에서 허름한 여행객으로 분한 김우진, 나오면서 모자를 눌러쓴다. 커다란 봇짐을 들춰 맨다.

천천히 걸으면서 곳곳에 있는 의열단들을 날카롭게 주시한다.

조희령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모습 그대로 역에 들어온다.

모두들 차례차례 열차에 오른다.

안동역 앞.

차에서 내리는 이정출, 하시모토, 그리고 일본정보원 하일수.

하시모토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이정출은 입술이 바짝 탄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하나하나 뜯어보며 역 안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58. 경성행 기차. 1등칸 / 낮

신혼여행 가는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은 루비크와 연계순.

연계순은 웃으면서도 긴장된 얼굴로 폭탄이 든 모자가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뚱뚱한 러시아 귀부인이 호들갑스럽게 새장을 들고 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연계순.

역무원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

연계순의 가방을 옮겨주겠다고 하는데 사양하는 연계순. 러시아 부인이 참견한다.

러시아 부인

(러) 모자는 망가지면 안 돼요. 여기 뒤요. 모자가 많은 모양이네 좀 무게가 나가네요.

모자가방을 억지로 자기 옆 빈자리로 가져가는 러시아 부인의 말에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연계순 주책부리는 러시아 부인 때문에 조마조마한 연계순.
루비크, 러시아 부인의 수다에 맞장구 쳐주며 주의를 돌린다.
하시모토가 역사무실에 들어가 신분을 밝히고 경성 경무국에 전화를 건다.
내용은 의열단 밀정에게 들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말하며 경성역에 무장경찰들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동시에 정채산의 수배전단을 역 전체에 붙여놓고 특히 외국인과 함께 내리는 동양여자를 무조건 검문하라고 지시한다.
이정출은 창밖 사람들을 보는 척 하면서 통화내용을 다 듣고 있다.

조회령은 화물칸에 짐을 싣는 역무원들에게 뒷돈을 얹어주며 잘 싣으라고 부탁한다.
화물칸 앞에서 조회령이 빠지면 동시에 심상봉이 올라타 루비크 연계순의 큰 가방과 허철주가 가져온 화물상자 그리고 조회령의 짐을 한곳에 모은 뒤 단도리를 한다.
1등칸으로 돌아온 조회령.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연계순과 루비크를 지나 몇 칸 떨어진 위치에 앉는다.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출발 전. 창 밖을 보며 역무원과 군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59. 3등칸 / 낮

승객들과 짐들이 영킨 3등칸. 중국인 노동자 복장의 심상봉과 허철주. 그리고 여행객 복장 김우진. 노부부가 와서 김우진에게 자리 좀 바꿔달라고 조른다.
자리를 바꿔주려 혼자 뒤편으로 가는 김우진. 심상봉과 허철주가 나란히 앉아있고 김우진 뒷쪽에 앉게 된다.
역무원이 표 검사를 하러 들어온다. 역무원이 김우진이 갖고 있는 짐을 치우라며 잔소리한다.

역 사무실에서 나온 이정출 하시모토와 정보원, 열차가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껌싸게 올라탄다.

열차는 출발하고.
화물칸에서 흔들리는 의열단의 화물상자들.
1등칸에서는 러시아 부인에게 술을 먹이며 뽕게 만드는 연계순과 루비크.
조회령은 책을 보는 척하며 시계를 본다.

3등칸은 여전히 시끄러운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다.
짐들 중에 술통이 깨지면서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이 젖는다.
발밑에 두고 있다가 술이 바닥에 흘러내리자 폭탄이 든 짐을 꺼안고 옮기는 김우진.

60. 중간칸 / 낮

중간칸에 오른 이정출과 하시모토.

이정출

자 여기서 나눠서 찾기로 하지. (좌우로 살피더니) 어디로 갈텐가?

하시모토

(고민하며) 어느 쪽이 땡기십니까? 연계순과 서양놈은 1등칸쪽에 있을테니
아무래도 연계순은 제가 ...

이정출

먼저 연계순 찾아 혼자 공 세우고 그러려는거 아니지?
(하시모토가 네?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이정출 킁킁 웃으며 농담이라며 어깨를 툭친다)
알았어. 그럼 자네가 그쪽으로 가봐. 난 밑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서 슬쩍 혼자소리로) 그런데 진짜 이 열차에 탄거맞는거야?

이정출, 하시모토가 연계순을 찾아 알아채기 전에 김우진을 찾아야 하지만 어느 쪽에 있을지 확신이
안선다. 이정출은 우선 무조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각 열차칸들의 사람들을
빠르게 살피며 지나간다.
반면 하시모토는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살피며 지나간다.

61. 3등칸 / 낮

김우진 붓집 밑이 젖자 할 수 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이정출 급한 마음으로 김우진을 찾고.
조회령이 몸이 빠지근한지 일어나 몸을 크게 기지개 피더니 통로로 나간다. 그런 조회령을 의식하는
연계순과 루비크.
루비크가 연계순을 보며 자신도 통로로 가서 스트레칭도하고 담배도 한대 피우고 오겠다며 일어선다.
러시아 여자가 일어날까봐 조심히 일어서고.
-3등칸
허철주와 심상봉이 3등칸과 화물칸 사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이정출이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그때 3등칸으로 오던 이정출, 3등칸 화장실로 들어가는 김우진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며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몸을 숨긴다.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은 너무 짧고 머리가 엉켜버린다.

-화장실에서 폭탄이 든 붓집의 젖은 부분을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김우진. 천을 버리고 문을 나선다.
화장실 문을 툭 열고나가는데 이정출이다.
서로 놀란다.

이정출

아 깜짝야!

김우진

놀라긴 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여긴 무슨일로 ...? 혹시?

이정출

니네들 다 뿔렸어. 연계순은 어딴냐? 서양놈이랑 같이있냐?

김우진

1등칸예요. 네 루비크와.

이정출

하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김우진

아니 이 기차 타는 건 이 기차 탄 우리 단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정출

지금 이 기차에 탄 단원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김상옥이도 그 쥐새끼놈이 분거라고!!

김우진

!!

이정출

내가 너한테 코가 꺾어서 지금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다.

여튼, 긴말은 못하겠고 어떡하든 하시모토한테 가서 시간 좀 끌테니까
넌 그 사이 어떡할 건지 생각이나 해봐. 나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김우진

하시모토가 내 얼굴 알고 있어요?

이정출

몇년전 니 사진을 갖고 있어. 근데 그때 그 사진은 멀쩡하게 하고 찍은 거라
(지금 변장한 물골을 보더니)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난다. 아주 뿔어지게 보지 않음 잘 모를꺼야. 난
지금 빨리 가서 하시모토를 잡아둘게. (뛰어가다 말고) 너 그런데 중국말 하나?

김우진

잘하진 못해요. 그냥 간단한 거.

이정출

그런데 왜 중국사람 웃을?

김우진

그렇다고 조선사람 이라고 티를 낼 순 없잖아요.

이정출 고갯 설레설레 흔들며 다시 앞 칸으로 뛰어가면 ,

김우진 표정이 복잡해진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누가 밀정인지를 생각한다.

지금 이 작전에 투입된 기차안의 단원들, 연계순 루비크 조희령 심상봉 허철주 .

한 명 한 명 생각해보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쓴 입맛을 다신다.

62. 1등칸 / 낮

하시모토, 그리고 반칸쯤 떨어져 오는 하일수가 점점 1등칸으로 다가오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루비크 하시모토를 보고 길을 피해주려고 물러선다.

하시모토 루비크를 슬쩍 쳐다보지만 워낙 서양인들이 많아 혼자 있는 루비크를 그다지 의심 어리게 보진 않는다.

루비크는 하일수를 보지 못한다. 루비크가 화장실로 들어갈때 하일수가 통로를 지나온다.

1등칸에 들어선 하시모토, 혼자 앉아있는 연계순을 유심히 쳐다본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앉아가는 동양여자들이 꽤 있다. 뒤를 돌아보면 반 칸 뒤쳐져 오던 하일수가 1등칸으로 들어온다.

하시모토

(낮은 목소리로) 자네 밀정은 혹시 못 봤나?

하 일수

오다가는 못 봤습니다.

하시모토

뒷쪽에 있나?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훑어 내려가보자고.

김우진의 근심 어린 표정,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짜내느라 곤혹스럽다.

플래쉬백으로 정채산이 이정출을 믿고 가보잔 말과 연계순이 이정출을 불안해하는 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이정출의 말들이 서로 혼란스럽게 떠오르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1등칸으로 가려고 한다.

2등칸에서 1등칸으로 향하는 이정출.

1등칸에서 2등칸쪽으로 가는 하시모토.

화물칸을 지나가며 심상봉과 허철주가 어디 가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자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며 각자 짐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 한다. 심상봉과 허철주, 김우진의 무언가 감추는듯한 표정을 읽고 고개를 가웃거린다.

63. 2등칸 / 낮

2등칸에서 만나는 이정출과 하시모토.

하시모토

뒤쪽은 없습니까?

이정출

으응 . 이봐.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들을 찾는다고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 개네들이 작전을 틀 수도 있다고 생각돼. 그리고 찾는다 해도 경성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일당을 한꺼번에 잡아두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놈들한테 습격 받을 염려도 있잖아. 어차피 경성가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 나갈 테니 김우진을 찾거나 수상한 놈들 발견하면 티 나지 않게 감시하고 있다가 경성에서 일망타진하듯 잡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때?
하시모토 곰곰이 생각하고

하시모토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럼 이렇게 하죠. 몰려다니지 말고 각자가 여행객처럼 편하게 다니다가 여기 중간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합시다.

이정출

그러니까 자네말은.... 어쨌든 승객들을 살피겠단 거지?

하시모토

네 그건 해야죠. (이정출이 그게 아니라 하며 입을 열려고 할때 말을 잘라먹고 들어가며)
하지만 조용히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게 아니라면 잘못 건드렸다 말썽이 날 테니까.

이정출, 하시모토의 융통성 없는 고집에 한숨을 내쉬지만 큰 말썽을 일으킬 것 같진 않으니 그렇게 하기로 한다.

그때 김우진이 2등칸을 막 들어서고 이정출과 눈이 마주친다. 흠칫 놀라는 두 사람. 김우진 창 밖을 보는 척 하면서 빈자리에 앉는다. 애기엄마가 간난아이를 안고 잠들어있다. 아기는 눈을 껌뻑 거리며 김우진을 보고 있다.

하시모토

어쨌든 마저 돌겠습니다 (정보원에게) 자네는 나 보다 한 칸 정도 더 떨어져서 와.

정보원 대답하고 이정출도 입이 바짝 말라가는 긴장된 상태에서 억지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하자고 한다.

하시모토, 김우진이 엉겁결에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돌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듯 지나간다.
김우진, 하시모토가 자기쪽으로 오자 바짝 긴장한다. 얼굴을 못 보게 고개를 떨어트린다.
이정출은 티 나게 고개를 깊이 숙인 김우진을 보자 바짝 긴장한다.
하시모토 좌우의 손님들을 살피다가 모자를 폭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우진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다.

이정출, 하시모토가 김우진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쪽 주머니에 있는 권총에 손을 천천히 갖다 댄다.
정보원이 고개를 돌려 하시모토의 조심스러워진 행동을 보더니 역시 긴장한다.
이정출, 더 깊숙이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권총을 잡는다. 입이 바짝 바짝 타오르며 심장이 쿵쾅거린다.
김우진 하시모토가 다가올수록 눈에 띄게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하시모토 확실히 이상하게 생각하며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면서 다가가는데 총을 꺼내 앞으로 가면 김우진 상체를 숙여 아기의 똥싼 귀저기를 갈아주고 있다.
하시모토 똥을 많이싼 아기의 귀저기를 보더니 표정을 찡그리며 지나간다.
그때 아기엄마가 잠에서 깨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아기의 똥싼 귀저기를 갈아주고 있는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이정출 슬며시 한숨을 내쉬고.
하시모토가 다음 칸으로 가자 일본정보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김우진을 지나쳐간다.

아기엄마

아이고 이거 ... (사과를 해야 할지 그렇다고 남의 아기 귀저기를 갈아주고 있냐고 따져야 할지 난감한 아직 비몽사몽의 표정으로) 아니 새 귀저긴 어떻게 ...

김우진

네 죄송합니다 냄새가 하두 그러니까 ... 아이가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허허... 그럼 .

김우진, 뒤를 돌아보며 하시모토와 일본 정보원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정출을 지나쳐 슬쩍 재빠르게 말을 하고 간다.

이정출

(어금니를 물며 작은소리로) 야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김우진

(역시 어금니를 물며 작은 소리로) 잠깐 나 좀 봐요.
1등칸과 2등칸 사이 식당차에 가 있을게요.

64. 1등칸 / 낮

1등칸에 들어오는 김우진. 조희령이 김우진을 발견하고 약간 놀란 표정이 되자 그 표정을 보던 연계순과 루비크가 조희령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본다. 김우진이 헛기침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조희령에게 잠깐 통로에서 보자고 한다.
김우진이 나가고 조희령이 주위를 둘러보다 천천히 통로로 나간다.

65. 통로 / 낮

김우진

우리 경성에서 내려서 각자 뿔뿔이 흩어진 다음 모일 장소를 바꿔야겠어.
아무래도 장소가 샌 것 같아.

조희령

아 정말? 몇시? 어디로?

김우진

황금정 목인여관 4시야.

조희령

황금정 목인여관 4시. 알았어.

김우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얘기할거니까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과 말 나누지마.
이 기차에도 일본경찰들이 잠입해있는 것 같으니까.

조희령

그래? .. 알았어.

김우진

나 먼저 나갈게. 조금만 있다 들어와.

김우진 먼저 1등칸으로 들어가 통로를 지나갈 때 루비크한테 눈짓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다.
루비크 신호를 받고 따라 나가면 연계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조희령이 들어온다. 조희령은 연계순쪽으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연계순이 다시 눈길을 맞추려 하자 조희령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여 조는척한다. 더 답답해진 연계순.

루비크

진짜?

김우진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쓴다) 응 상해때부터 너와 연계순 행적을 쫓아 다녔잖아. 넌 서양인이라 눈에도 잘 띄고 동양여자와 커플인 서양인은 경성에선 무조건 검문검색 당할꺼야. 만에 하나 일이 크게 잘못되도 넌 서양인 이라 통행증을 내보이며 강하게 항의하면 어떻게 못할꺼야. 경성역에서 연계순이 잡혀도 넌 폭탄을 들고나가 종로통 태화반점으로 6시 까지만 오면 돼.

루비크

오케이 알았어.

김우진

연계순한테 가서 2등칸 가기 전 식당칸 앞에 있을테니 그쪽으로 와달라고 해줘.

CUT TO.

식당칸 앞.

연계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김우진

별일 아냐. 그냥 만약을 위해 혹시 원래 해놓은 약속이 저쪽에 넘어갔을 까봐 그런 거야.
황금정 을미관 .

연계순

황금정 을미관.

김우진

6시.

연계순

황금정 을미관 6시.

김우진, 설마 연계순인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마음과 반대로 안쓰런 마음으로 연계순을 바라본다.
연계순이 왜요? 하는 표정을 보면 김우진 아무 말 없이 연계순의 어깨를 짚 쥐었다가 3등칸쪽으로 간다.

CUT TO.

3등칸에 심상봉 보고 나오라는 눈짓. 허칠주는 잠들어있고 심상봉이 손짓으로 나만? 하는 손짓을 하면 김우진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통로.

김우진

장소가 변경됐어. 종로통 태화반점 4시야. 들어가서 허철주 보고 나오라고 해.
철주에게는 말하지마.

CUT TO.

허철주, 잠이 덜 깬 표정이지만 뭔가 긴장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김우진

내자동 박영목 가게서 모여. 5시. 심상봉이든 누구든 다른 누구와 이 건에 대해선 얘기하지마.

김우진이 다시 식당칸으로 이동한다.

김우진이 먼저 나가고 이정출이 주위를 훑 한번 둘러보더니 통로에서 둘이 만난다.

이정출

야 뭐야. 지금 너랑 계속 만나면 나도 위험해!

김우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우리 단원들 하나하나 만나서 각기 다른 작전 내용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작전이 바꿨다고 우리가 경성도착 후 만나야 될 장소와 시간을 다 틀리게 말했어요.

그럼 그 누군가가 내리기 전에 그 얘길 하시모토의 정보원에게 전달하겠죠.

바로 그 놈이 밀정인거죠. 김상옥형을 밀고한 새끼.

여하튼 그 말 들으면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이정출

야 글썄 우리가 자꾸 만나면 위험하다니까.

김우진

그 말만 전해줘요. 누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지. 부탁이에요.

경성에 내리면 그놈이 우릴 밀고 할거예요.

경성에 도착하기 전에 놈을 찾아서 처치해야 되요. 아니면 우린 물살당할 겁니다.

이정출

내가 왜 니 작전을 해야되는건지 이유나 말해봐.

김우진

우리와 함께 있었던일 저쪽으로 넘어가면 형도 어려워지니까. 사실 따지고보면 일본애들한테준 거짓정보도 형이랑 나랑 한거고 덕분에 결국 우리가 이 기차에 무사히 탄거야노.

이정출

야 니들편인척 접근하는게 내일이야 히가시한테 허락받은 일이라구.

김우진

그러기엔 히가시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와 함께 했잖소.

이정출

아니 그런데 이자식은 얼굴만 대면 항상 공갈협박야?

김우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러는거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폭탄터트려 이 기차안에서 다 죽어요? 형. 우리 경성까지만 무사히 가게만 해주세요. 예?
(이정출 난감한 표정) 난 계속 이 식당칸에서 대기하고 있을께요. 어서 움직여요!

이정출, 이 새끼 때문에 인생 말린다는 표정으로 일어서 나간다. 이정출의 머리속은 계속 형클어져간다.

66. 1등칸 / 낮

하일수 1등칸 앞 화장실 문을 열어본 뒤 1등칸으로 들어간다.
예사인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1등칸의 사람들 날카롭게 생긴 일본정보원을 쳐다본다.
조희령도, 루비크도 연계순도 일본정보원을 쳐다본다.

67. 식당칸 / 낮

김우진이 간단한 식사와 비루를 놓고 식사를 한다기보단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이다.
하시모토가 빠른 걸음으로 김우진 옆을 지나간다.

68. 2등칸 통로 / 낮

3등칸쪽에서 올라오는 하시모토, 1등칸에서 내려오는 이정출이 통로에서 만난다.

하시모토

어떻습니까?

이정출

아 이 자식이 노인으로 변장을 한건지 통 찾을 수가 없네. 뭐 다시 훑어봐야지. 거기 의열단놈
밀정은 찾은 건가?

하시모토

아직요. 그래서 빠트린 곳 없나 다시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이랑 화물칸도요.

그때 일본정보원이 들어온다.

하시모토

만났나?

하일수

네 있습니다.

하시모토

아 다행이다.

하일수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이정출

!

인서트 :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며 간이역을 지나가는 열차.

69. 특실 / 낮

이정출, 하시모토, 정보원이 음성음성 빈자리가 있는 특실에 앉아 계획을 짜고 있다.

하시모토

일단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밀정이 핵심단원인 김우진과 연계순을 우리에게 지목할겁니다.

비전.

열차안 어두운 그림자 하나 하시모토와 하일수에게 의열단 작전 이야기를 건넨다.

경성역 ;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한다. 조회령이 내린다. 뒤이어 연계순과 루비크가 내린다.

일본정보원이 먼저 내려 누군가를 찾는다. 이정출 하시모토 가 뒤 따라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걷는다.

심상봉 허철주 김우진이 내린다. 많은 인파속에 섞이는 의열단과 일본경찰들.

한쪽에선 일본 무장병력 1개 소대병력이 잠복하고 있고 사복을 입은 일본 비밀경찰들이 한 손에 연계순 사진이 나온 전단지를 들고 있다. 일본정보원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하시모토에게 표정과

손짓으로 김우진을 가리킨다. 이정출, 김우진이 맞는지 확인한다. 하시모토가 총을 꺼내 김우진에게 다가간다. 일본정보원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밀경찰들에게 연계순을 지목한다.
그러면 역시 빠르게 비밀경찰들이 연계순에게 다가가면 숨어있던 무장경찰들 우루루 나와 김우진과 연계순을 둘러싼다.
출구로 빠져 나오는 승객들 혼비백산하고 나머지 의열단들 당황한다.

다시 특실.

이정출

으응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경성까지는 건들지 않겠단 거지?

하시모토

네 이경부 이야길 듣고 보니 우리보다 지금 의열단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출, 마치 깊은 생각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정출

(그러면서 짐짓 다소 과장스럽게) 아 이제야 의열단 놈들을 다 소탕할 수 있겠네. 곧 정채산이두 잡구. 흥미진진하네... 허허.

하시모토도 비릿한 미소로 화답한다. 이정출 기지개를 키듯 일어서며

이정출

난 비루나 한잔 마셔야겠다. 자네도 갈텐가?

하시모토

아닙니다. 술 잘 못마십니다. 다녀오십시오.

이정출

그래 그래 아침부터 뛰어다니느라 고생했는데 잠시 쉬고 있어. 얼른 갔다올테니.

이정출 빠른 걸음으로 식당칸으로 간다.

70. 식당칸 / 낮

식당칸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테이블엔 남녀 일본인 한 커플만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일본인 여자가 남자에게 후식으로 무얼 먹겠냐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본다.
김우진이 앉아있던 자리엔 찻잔과 다기만 남아있고 김우진은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정출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바에 가서 맥주하나를 시킨다.

바로 그때 옆에서 모시모시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래 고개를 돌리면 일본인 여자가 종업원을 부르는 소리. 이정출이 너무 크게 반응하는 바람에 일본인 두 남녀 멈칫한다. 뻔뻔한 분위기. 그러다 1등칸쪽 문이 열리면서 김우진이 들어온다. 김우진이 이정출을 힐끗 보며 천천히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정출,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맥주 한 잔을 들고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처럼 앉는다.

이정출

(낮은 소리로) 야 안보여서 무슨 일 냈나 했다.

김우진

(역시 낮은 소리) 네 답답해서 바람 잠깐 쐬고 왔어요.
나왔어요?

이정출

그래.

김우진

!!! ... 어디서 몇시랍니다.

이정출

... 황금정.

김우진

...

플래쉬 백 : 황금정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좁혀진다.

조희령과 연계순이 김우진이 말하면 복창하듯 장소와 시간을 되받아 말하는 컷.

다시 식당칸

이정출

황금정. 목인여관. 4시.

플래쉬백. 조희령 : 황금정 목인여관 4시.

김우진

!

이정출

너 생각 똑바로 해.
기차에선 말썽피지 말아. 우리 다 죽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앞으로 절대 날 찾지,

그때 이정출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영문을 몰라하며 이정출을 바라보는 김우진.

김우진

왜요? 무슨일이예요?

이정출

야 김우진 우린 여기 까진 것 같다 (김우진 의아한 표정)

김우진

?

돌아간 줄 알았던 하시모토가 들어온다.
김우진 이정출의 표정을 보고 낄새를 알아채고 긴장한다.
하시모토 실실 웃으며 이정출 앞자리에 앉는다.
맥주 한 잔을 시키며 주위를 둘러보다.
김우진이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헛기침을 하며 차를 마시려고 한다.
그를 지그시 바라보는 하시모토.

이정출

자리에 가 있겠다더니

하시모토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경부와 맥주 한 잔 해야겠습니다.

이정출, 그러냐는 투로 가볍게 고갯짓을 한다. 하시모토의 말이 끝나자 주위는 마치 급속도로 냉랭한 침묵이 흐른다.
묵직한 저음의 기차 덜컹거리는 소리와 김우진이 찻잔에 차를 따르는 줄줄줄 거리는 소리, 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정출과 김우진은 서서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하시모토는 마치 먹이가 자기 반경에 들어오기만을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맹수의 싸늘한 고요함으로 김우진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식당문이 열리고 일본정보원 하일수가 날카로운 눈매로 들어와 함께 좌석하지 않고 입구 쪽에 테이블의자를 빼내 문지기처럼 앉아 역시 김우진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출은 느낀다. 일이 크게 틀어지고 있다.

하시모토

(중) 차 향기가 좋습니다.

김우진,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하시모토

(중) 제 발음이 안 좋죠? (웃음)

김우진,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는다.

김우진,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이정출이 하시모토를 부른다. 하시모토, 이정출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는 거의 대꾸를 안한다.

그 사이 맥주가 한잔 온다.

이정출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건배하자고 하지만 하시모토, 이정출은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한쪽으로 스윙 밀어낸다.

하시모토

(일) 이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정출

(마른침을 삼키며 목소리가 살며시 떨린다) …… 하시모토, 무슨 생각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실내를 가득 채우는 팽팽한 긴장감. 하시모토,

하시모토

(일) 이 시간부터 이 곳은 내가 지휘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중) (김우진을 쳐다보며) 경찰이다. 신분증을 꺼내.

김우진,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하시모토를 똑바로 쳐다본다.

이정출이 약간 놀란다. 김우진이 하시모토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붓짐에 손을 갖다 대자.

되려, 긴장한 하시모토가 먼저 권총을 잡는다. 동시에 문 옆에 정보원도 총을 움켜쥐는다.

이정출, 천천히 맥주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꼳꼳하게 핀다.

하시모토

(일) 잠깐 동작그만.

김우진

신분증이 이 안에 있는데 자네가 와서 꺼내갈 텐가?

이정출

두 사람 다 잘 들어. 자칫하다간 여기서 다 죽어.

하시모토

그러야 누가 먼저 상대를 제압하느냐에 따른 거겠지.

하시모토 총을 꺼내 김우진의 머리를 향한다. 일본정보원도 총을 꺼내 김우진을 겨눈다.

식당칸의 점원과 일본 손님 내외 놀라서 거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숨 막히는 긴장감이 식당칸을 꽉 메운다.

하시모토가 천천히 일어서 김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들라고 하면 김우진 하시모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을 천천히 든다.

하시모토가 김우진에게 다가가 총으로 눌러쓴 모자를 들어 올리면完연하게 드러나는 김우진얼굴.

하시모토

김우진.

김우진

(중)정출이형, 형이 이자를 맡아 저놈은 내가 맡을께.

하시모토

뭐라는 거야?

이정출

(중)아니, 위험한 짓은 안 하는게 좋을 거야.

김우진

(중)벼랑끝에 있어. 뛰어내릴지 돌아갈지 정해야지. 난 이미 정했어.

하시모토

이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보원

못 들었습니다!!!

김우진

일제의 개라고 했다.

하시모토

이리 가까이와!!

정보원이 한걸음 뗄 때 이정출과 김우진은 이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직감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정출은 아직 판단이 안선다. 정보원이 테이블 사이에 통로를 걸어오는데 달리는 열차라

안정적이지 않다. 기차가 크게 덜컹거리는 패턴이 올때쯤.

김우진

지금!

이정출

하시모토….

하시모토가 옆눈으로 이정출을 보려고 할 때 탕!! 하시모토의 반대쪽 머리통에서 피가 튀며 하시모토가 고꾸라진다.

동시에 기겁하는 정보원의 총에 불이 뿜고 테이블 위로 파편이 튀어 오른다. 그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일본 여자가 튀어나오다 정보원이 쏜 총에 가슴 쪽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다시 정보원이 조준해서 이정출을 향해 총을 연속으로 쏘면서 걸어오는데 옆에서 들리는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눈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진다. 이정출 고개를 돌려보면 김우진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 오른다. 그때 문소리가 나면서 일본인 남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는데 이정출이 통로로 쫓아나가 총을 쏘서 쓰러트린다. 잠시 정적.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만 무겁게 들려오고, 이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식당칸은 온통 피칠갑이 되어있고.

이정출

…… 염병할 새끼 좀 가만히 있지. 지 명줄 저리 재촉하나

김우진

형 팔 …

이정출, 그 소리에 자기 몸을 보면 왼쪽 팔뚝이 피로 흥건히 젖어있다. 식당칸과 붙어있는 2등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기웃거리며 한두 명 식당칸 쪽으로 나오는데 역무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식당칸으로 뛰어오고 있다. 이정출 천천히 가슴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이정출

(역무원과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 난 일본 경무국 경부다.
공무집행 중이니까 소란 떨지 말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긴장이 풀리는 지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아 버리는 이정출.

이정출

니미럴것.

역무원들이 나와 상황을 정리하고, 김우진이 이정출에게 다가오면

이정출

여긴 내가 마무리 질테니까 넌 니 자리로 가서 니들 애들 단도리나 잘해놔.
경성에 가서 말썽 없게.

김우진

이 은혜.

이정출

야 은혜로 또 나 엮지 말고 빨리 빨리 가서 정리해.
(김우진 나가려 하자) 어떻게 할 거야?

김우진

네?

이정출

경성에서 어떻게 할꺼냐고. 일본경찰들이 짹 깔려있을텐데.

김우진

...

이정출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다. 다소 힘이 쏙 빠져있지만 강직한 태도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잖아.

그러니 나랑 니네들이랑 입아구를 맞춰야 될 것 아냐. 그래야 니네도 살고 나두 살지.

71. 열차안. 화물칸 / 낮

조희령 연계순, 심상봉, 허철주가 급히 화물칸 쪽으로 모이고 있다.

화물칸에는 김우진이 앉아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상기된 표정.

조희령

루비크는?

연계순

몸이 안 좋다고 내가 전해준다고 했어요.

허철주

(궁시렁거리듯) 지금 상태 좋은 사람 어딴다구. 서양놈들 엄살하난 ...

조희령

어떻게 된거야?

김우진

응, 경성에서부터 상해까지 와서 우릴 쫓던 하시모토란 자와 그 정보원이 이 기차에 타고 있었어.

모두들 놀라고.

조희령

아니 왜 그 말을 안 해 준거야??

김우진, 조희령을 담담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김우진

미안해. 말해주면 괜히 긴장하고 그러면 놈들한테 눈에 필까봐...
그래도 다행히 놈들을 처치했어.

또다시 모두들 놀라고.

조희령

처치했다면 죽은 거야?

김우진

자세한 내용을 길게 말할 순 없고 우선 우리가 경성에 내려서 주의할 것 다시 말해줄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 기차를 탄 건 정보가 새나간 것 같고.

심상봉

아니 어떻게? 이걸 정말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

김우진

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 있었나. 어쨌든 그렇게 됐고 아마 경성에서 일본경찰들이 쫓
갈려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걱정 안 하는데 나와 루비크 그리고 연계순이 가장 조심해야 돼.
루비크와 연계순이 부부행세를 한다는 게 새 나갔으니까 폭탄은 모두 루비크한테 넘기고 몇
발자국 떨어져 가. 만약 잡혀도 루비크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나와 계순이가 가장 위험해. 어쩌면 전단지에 우리 사진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허철주

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냐?

김우진

맞아. 아주 위험해. 하지만 안 그런 적 없잖아. 자 다들 명심해주길 바래. 경성을 빠져 나가면
우리가 다시 회합할 장소는 원래대로 박영목이네로 할 거야. 시간도 그대로구. 만약 일이
잘못되어서 누군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린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다들 무사히 경성에 도착하자.

각자 결연하면서도 한쪽으론 불안함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선다.

그때 김우진이 조희령을 부른다.

모두들 빠져나가고 조희령이 멈칫한다. 조희령, 뭔가 직감이 안 좋아 뒤도 안 돌아 보고 그냥 서있다.

김우진

희령이.

조희령

(오히려 차분하게) 어.

김우진

걱정되냐?

직감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지만 의외의 질문이다. 천천히 돌아선다.

조희령

솔직히 그렇다.

김우진

맞아. 예상보다 삼엄해. 어떻게 생각하냐? 난 점점 확신이 안 서. 특히 이번엔 감이 안 좋아.

조희령

나야 원래 겁도 많고 하지만 넌 ... 왜 너답지 않게.

김우진

솔직히 이젠 자신 없어. 내 맘 이해가나?

조희령

..... 알지.

김우진

포기할까.

조희령

무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

김우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중에 쪽정이가 또 있다는데.

조희령

잡았잖아.

김우진

괜히 쪽정인가. 골라내도 골라내도 소용없으니 쪽정이지.....

조희령

(웃음) 무슨 의미야. (웃음으로 거부하려 하지만 김우진의 저승사자 눈빛에 점점 굳는다)

김우진

변심한 거냐.

조희령

(심장이 덜컹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변심이 아니라 작심이라 해야지.

(차가운 표정으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으니까. 안 될 거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조희령이 인정하자 오히려 속이 무너지는 김우진.

김우진

어떻게. 이문 안 남는 가게 문 닫듯이 말하는구나. 너는.

조희령

한번이라도 성공했다면 이러지는 않겠지.

시골뜨기들 꼬셔서 폭탄이나 던지게 한다고 독립이 오면.

나는 더는 어리석은 척은 못하겠다.

김우진

그래서.

조희령

나는 이제 빠져 나오고 싶다. 너야말로 지친 거 다 알아. 경성에 가도 소용없어.
희망 없는 사업이야. 내가 이번에 봐준다 해도.

김우진

봐 줘? 누가? 누구를?

조희령

왜?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 매번 당하는 놈이 날 어찌려고?
이걸 다 누구 돈으로 했는데?

김우진

그랬지. 항상 내가 문제였지..... 친구가 제일 가까운 적인 것도 모르고.
너랑은 적지기 싫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조희령

무슨 의미인데.

김우진

상욱이형의 복수야.

조희령.

안 그랬으면 널 밀고했을꺼야. 넌 그래도 내 친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할 일 아니니?

그때 반대편 어둠속에서 누군가 걸어나온다. 뒤돌아보면 루비크가 성큼 성큼 걸어온다.

루비크

(영)난 너의 친구도 아니고 너에 대해서 아무런 우정도 없으니까.

조희령

(루비크를 쫓 쳐다보다 다시 시니컬한 표정이 되어 김우진을 향하며) 저 양놈한테 날 죽이게
하려는건 아니지?

루비크, 조희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을 꺼내 조희령의 목뒤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섬광이 번쩍하고 동시에 붉은 피를 토하며 싱겁게 쿵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조희령.

72. 화차 / 낮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같은 불구덩이.
김우진과 루비크, 조희령을 싣 우편포대를 들어 그 안에 집어넣는다.

불길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우편포대.
그 불길을 잠시 넋 놓고 바라보는 김우진.

김우진

나중에 지옥에서 보자.

루비크가 김우진의 어깨를 툭 치며 먼저 나간다.

인서트.
힘차게 앞을 향해 달리는 기차.

73. 특실 사이 통로 / 낮

연계순이 임시로 이정출의 왼쪽팔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정출이 담배를 하나 피며 연계순과 김우진을 번갈아 본다.
연계순이 다 됐는지 일어서면 이정출도 따라 일어서며.

이정출

경성에 가면 나는 너는 너 모른다.

김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정출, 하시모토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김우진에게 준다.

이정출

우리는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다. 다시 만났을 때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둘 다 죽든가.

김우진

형님. 미안하오.

이정출, 김우진의 얼굴을 새끼 하는 표정으로 잠시 보다가 연계순과 김우진을 번갈아 본다.
그 시선이 의식되는 연계순.

이정출.

둘이 잘 어울린다. 손이 고와. 뺨도 붉고.

연계순이 네? 하는 표정을 질 때 문을 열고 달리는 열차에서 몸을 날린다.
데굴데굴 언덕을 구르는 이정출.
그런 이정출을 바라보는 김우진의 심정이 벅차다.

74. 1등칸. 통로 / 낮

지친듯한 김우진의 표정을 읽는 연계순.

연계순

괜찮아요.?

김우진

응 괜찮아.

연계순

이번일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김우진

응 그럴꺼야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 놈들에게 노출된 것 같아.

많이 조심했는데 내부의 적까진 어떡할 수가 없네.

회령이가 ... 10년을 함께한 친군데... 이젠 누구도 믿지못하겠어.

솔직히 많이 위험하고 많이 불안해.

연계순

우리는 실패해도 저 폭탄들은 성공할꺼예요.

김우진, 뭔가 말을 잊지 못한다.

연계순, 김우진 얼굴을 뺨히 쳐다보다 갑자기 김우진의 목을 끌어 안아 깊은 키스를 한다.

한동안 깊은 입맞춤을 하고 나서.

연계순

됐어.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아.

씨익 웃으며 1등칸으로 들어가는 연계순.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75. 1등칸 / 밤

다시 자리에 돌아온 김우진.

손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차창으로 시선을 돌린 김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 편에 앉아있는 연계순. 그저 멀리서 눈빛으로만 말 못할 심사를 나누는 두 사람.

76. 경성역 / 밤

요란한 기적소리와 함께.
열차가 경성역에 도착하고.
승객들 내리느라 정신 없는 가운데.
연계순은 심상봉과 함께 내린다.
김우진과 허철주가 그 옆을 지나간다.

김우진

(소리) 지금 경성은 우리가 떠났을 때의 경성이 아니야. 각자 무사히 약속장소로 찾아온다.

의열단원 서진돌이 플랫폼에서 웃는 얼굴로 승객들을 돕고 있다.
다른 승객들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 연계순과 심상봉. 그 앞에 루비크가 조금 앞서서 걷고 있다.
그 앞으로 따로 걷는 김우진과 허철주가 보인다.
김우진과 서진돌이 눈을 맞춘다.

77. 경성역 검표구 앞 / 밤

검표구 앞.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우진과 허철주는 이정출과 하시모토의 통행증을 당당하게 내민다. 경찰의 경례를 받으며 빠져나가는 두 남자.
곧 이어, 루비크, 연계순과 그 옆의 머슴 같은 심상봉이 들어선다.
일본의 사복경찰이 루비크를 보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연계순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동료 경찰에게 뭐라 한다.
동료 경찰의 손에 있는 것은 연계순의 사진이다.
연계순이 경성을 떠나기 전 영생사진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 났다는 걸 느끼는 연계순과 심상봉.
심상봉이 갑자기 수선을 피우기 시작한다.

심상봉

뭐요! 빨리빨리 안 보내주고!

심상봉, 짐가방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김우진과 허철주.
심상봉이 경찰들한테 양 손을 붙잡히자 갑자기 흥분을 하며 저쪽으로 달려가고 그를 잡으려고 뒤쫓는 경찰들.
그 틈을 이용해서 뒷걸음질 치는 연계순. 루비크가 당황하며 김우진을 찾다가 그곳을 빠져 나오는데 한 무리의 경찰들이 루비크를 감싸며 포위한다. 루비크가 통행증을 보이며 항의해보지만 경찰 그 통행증을 압수하고 루비크를 끌고 간다.

그때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 연계순이 도망친다.

경찰

연계순!

연계순, 못 들은 척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는데 그 사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힌다.
반항하지만 사복경찰이 다가와 연계순의 복부를 강타한다. 헉, 숨을 내쉬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연계순.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온 김우진. 그러나 허철주가 잡는다.

연계순, 끌려가면서 사람들 틈으로 김우진과 눈이 마주치는데,
짧은 순간, 안타까운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연계순이 먼저 고개를 돌리고.
허철주, 김우진의 팔을 끌며 반대편으로 급히 데려간다.

김우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연계순.

아수라장이 되는 경성역 플랫폼.

페이드 아웃.

78. 허철주의 친척집. 헛간 / 낮

김우진과 허철주가 어둠 속에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긴장하는 두 사람. 조심스레 문을 열면 평상복을 입은 서진돌이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와 있다. 급히 그를 들여보내며 밖을 살피는 허철주.

허철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밀고한 거야!

서진돌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우진,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 상태를 확인한다. 도자기들과 도자기함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폭탄들.
김우진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둡다.

서진돌

누님은 어떡합니까?

김우진

(얼이 나간 얼굴) 깨지지 않았군.

서진돌과 허철주, 낯나간 사람처럼 동문서답하는 김우진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김우진, 괴로운 표정을 감출 수 없다.
이때,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친척들

이집 장손이 돌아왔다며?

긴장하며 서로를 보는 김우진과 허철주와 서진돌.
허철주가 정색한 표정을 지우며 급히 밖으로 나간다.

허철주

어르신, 오셨습니까~~

밖에서는 허철주가 집안 친척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김우진과 서진돌은 폭탄이 든 상자를 켜더미 속에 숨긴다.

79. 영생 사진관 / 밤

인력거를 타고 영생 사진관 앞을 지나는 김우진.
날카롭게 사방을 살피며 사진관 앞에 멈추려는 순간. 사진관 쇼윈도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멈칫하는 김우진.
재빨리 쇼윈도 안쪽을 살피면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게 보인다.

김우진

(인력거꾼에게 조용히) 그냥 갑시다.

쇼윈도우 액자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다. 형과 김우진만의 신호이다.
사진관 안은 수색을 당해서 난장판이다. 카메라는 부서져있고, 사진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다.
취조 고문을 당해 물고물이 말이 아닌 김학진이 멍하니 앉아있다.

80. 경무국 히가시 집무실 / 낮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이정출이 다리를 조금 절면서 들어온다.
히가시의 책상 앞에 하시모토의 유류품이 든 상자가 놓여있다.

이정출

(일) 죄송합니다.

히가시

(일) 몸은 어떤가?

이정출

(일) 당장 복귀할 수 있습니다.

히가시

(일) 총을 맞고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정도만 다쳤다니. 다행이군

히가시, 묘한 시선으로 이정출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히가시

(일) 하시모토를 잃은 것은 애석하지만 그래도 자네 공이 컸네.

이정출

?

81. 경무국 취조실 / 낮

히가시를 따라온 이정출, 불안한 직감에 뒹싸이는데.

취조실 창살 달린 문을 통해 심상봉이 취조 당하는걸 보는 이정출. 동공이 흔들린다.

히가시

(일) 대어를 낚기 위한 아주 좋은 미끼를 건졌더군.

히가시, 또 다른 취조실의 문을 열면 고문을 당한 연계순이 의자에 묶인 채 있다.

놀라는 이정출, 일순간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는 히가시.

히가시를 따라 들어가는 이정출.

연계순,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정출과 눈이 마주친다.

히가시

(일) 누군지 알아보겠나?

연계순의 찢겨진 저고리 사이로 아직도 인두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계순의 참혹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는 이정출.

연계순, 히가시의 말을 무시하며 고개를 숙인다.

히가시

(일) 여러 말을 술술한다지만 조선말이 가장 편하겠지. 여기 조선어로 물어봐 줄 사람이 왔네.

이정출

(뜸들이다가) 김..김우진은 어디있나?

연계순은 아무말도 안한다,
히가시, 눈짓으로 이정출에게 고문을 지시한다.
이정출의 손끝이 떨린다.
불게 달궈진 인두를 집는 이정출.
흥미로운 듯 히가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이정출이 머뭇거리며 연계순의 살집이 많은 하얀 넓적다리에 갖다 대자 히가시가 이정출을 부른다.
돌아보면 얼굴에 지지라고 명령한다. 연계순 뒤에 있던 고문기술자가 연계순의 얼굴을 돌리지 못하도록 꼭 잡는다.
이정출, 정신이 아득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인두를 연계순의 얼굴에 갖다 댈다.
연계순의 커다란 눈망울이 이정출을 올려다보고있다. 이정출 그녀의 눈을 보고 있기가 힘들다.
연계순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이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아니 사람의 소리 같지도 않다.
처절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히가시도 힘드는지 슬쩍 밖으로 나간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이정출. 신물이 넘어올 때 까지 토악질을 해댄다.

82. 허철주 부모님 산소 / 낮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리는 허철주. 봉분 위의 잡초를 뽑는 허철주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허철주

어머니.....

절을 하는 허철주 뒤에 서 있는 집안 어른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물러나면 뒤에서 소리 없이 일본 형사들이 다가온다.

CUT TO

무덤들 사이를 뛰어넘으며 맹렬하게 도망치는 허철주. 그러나 형사들에게 잡히는 허철주.
피곤죽이 될 때까지 싸우는 허철주.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부모님 무덤을 껴안고 서럽게
오열한다.
저편에서 구경하듯 보고 있는 친척들의 배신이 뼈에 사무치는 허철주.

해질녘 어디론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김우진. 동산을 넘고 하천을 침범거리며 건넌다. 멀리서 개짖는 소리.

경무국 대기실 문을 열고 루비크가 포승줄에 손이 묶여 끌려나온다.

일본 경찰

(일) 너는 이시간 이후로 너의 나라로 추방된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영어로 루비크에게 통역해준다.
말이 끝나면 경찰하나가 루비크를 호송차로 끌고간다.

83. 경시청 취조실 / 낮

피투성이가 되어 고문대에 쓰러져 있는 허철주.
히가시가 들어온다. 심문하던 일본형사가 보고를 한다.

일본 형사

(일)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 말로는 김우진은 그날 밤 이후로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폭탄은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히가시. 깨진 도자기들만 남아있다.

히가시

(일) (도자기들을 만지며) 좋은 물건인데..... 이정출 경부는 왜 없지?

84. 경무국 화장실 / 낮

칼칼 물을 틀어놓고 피가 묻은 손을 씻고 있는 이정출.
거울을 보는 이정출. 손끝이 바르르 떨린다.

85. 히가시의 차 / 낮

히가시가 뒷좌석에 앉아있고 이정출이 빈 운전석 옆에 올라탄다.

히가시

(일) 얼굴이 안 좋군.

이정출

(일) 아닙니다.

히가시

둘이 상해에서 꽤 친했다는데.

이정출

(일) 저를 의심하십니까?

숨 막히는 차안의 공기. 이정출, 차창에 비치는 히가시의 얼굴을 살피고. 자기도 모르게 총이 있는
허리춤을 만져보고.

밖에 대기하고 있는 운전수와 경찰들을 바라본다. 모두 안 그런 척 하며 이정출을 감시하고 있다.

히가시

(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처음부터 의심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정보원들의 일은 일의 특수성 때문에 임무가 진행중일때는 꼬치꼬치 묻지 않는 것도
관례지. 그러니까 자네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벌여왔든

이정출

(일)

히가시

(일) 이제까지는 다 잊어줄 테니. 김우진을 데려와.

차에서 내리는 이정출의 다리가 떨린다.

86. 영생 사진관 2층 / 밤

수색으로 난리가 난 김우진의 사무실을 다시 찾은 이정출.

혹시 모를 단서를 찾아 사무실을 뒤지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줍는다.

초반부에 김우진이 찍어준 연계순 사진이다. 연계순 사진이 수배전단지에 실린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는 이정출.

썩썩한 표정을 지으며 창가로 간다.

거리 뒷골목이 내려 보인다. 검은 그림자가 이쪽 창을 올려다보고 있다.

87. 뒷골목 / 밤

영생 사진관 창을 올려다보던 검은 그림자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정출.

그림자, 이정출을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동성이다.

주변을 살피며 주동성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이정출.

주동성

우진 형님이 정릉집으로 찾아왔어요. 이정출 경부에게 가서 신분증을 부탁해 달라고.
도와줄 거라고.

이정출

김우진 지금 어디 있어?

88. 경무국 사무실 / 밤

컴컴한 사무실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이정출.

히가시

(소리) 김우진을 데려와.

고민하는 이정출의 모습.
김사희가 노크를 하며 퇴근 안 하시냐고 묻는다.
먼저 가라고 하는 이정출.

경무국을 나서는 김사희, 안쪽으로 불이 꺼지는 사무실. 이정출이 나온다.
터벅 터벅 경성거리를 걷는 이정출.

89. 바. (화려한 조명과 장식이 달려있는 극장식 바)

이정출이 양주를 한잔 시켜 마시고 있다.
무대에서 남자가수가 높은 음의 가성으로 사의 찬미를 부르고 있다.

90. 산장 / 낮

혼자 하얀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이정출.
멀리 산장이 보인다.
산장 안에서 밖을 내려다보는 시선.
이정출, 조심스럽게 산장으로 들어간다.
김우진, 놀란 얼굴로 권총을 든 채 모습을 드러낸다.

이정출

어이.

김우진

혼자 온 거야? 어떻게?

이정출

나 총독부 경부야. 이 정도 모를 까 봐.

김우진

다들 어떻게 됐나?

이정출, 차마 대답을 못하고.

김우진

(참담한)계순이는 버티기 힘들텐데

이정출

(연계순말에 격앙되어) 꼴 좋네. 자신만만하더니.

김우진

.....

이정출

(어떤 치떨림이 밀려오자 어금니를 깨물며) 빨리 떠.
(신분증과 돈을 준다) 일본으로 가는 석탄 화물선이야.
당장 인천으로 가면 탈 수 있어.

김우진

(이정출이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 형은 어떻던가?

이정출

못 만났어.

김우진

그럼 여긴 어떻게?

이정출

주동성이.

김우진

(놀람) 주동성이?

이정출

주동성한테 시켰잖아. 신분증을.

김우진과 이정출, 서로의 얼굴을 본다.
갑자기 날카롭게 밖을 살피는 이정출.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눈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김우진도 창가에 바짝 붙어 선다.

김우진

어떻게 된 거야?

이정출

아차차. 주동성이 이새끼. 주동성.... 주동성이 뺏을 놓은 거야.
아니지 히가시겠지.

김우진

왜?

이정출

히가시, 히가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나올지.

김우진

미치겠네.

이정출

왜. 이제 진짜 한 배를 탔는데. 한 배 타는 거 좋아하잖아.

김우진

가라앉는 배에 같이 타서 뭐 하려고!

이정출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김우진

일단 진짜 살고 보자고.

두 사람, 창밖을 본다. 사방에서 포위하는 군인들이 보인다.
두 사람, 불안한 빛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를 본다.
둘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침묵.

이정출이 김우진에게 말없이 자기의 권총을 내민다.

CUT TO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형사

(창밖을 보며) 저기다!

91. 산속 / 낮

맹렬히 도망가는 김우진을 쫓는 군인들. 군견들도 무섭게 달리며 뒤를 쫓고.
총알이 쉼~ 날아오고. 소나무 기둥을 뚫는 총알. 넘어지며 구르는 김우진.
군인들 달려오고. 군견이 김우진을 잡고서 물어뜯는다.

형사

(김우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군견들을 멈추라고 눈짓한다) 멈춰!

이때, 산 저쪽에서 ‘타앙! 타아아앙!’ 연속된 총소리가 들리고.
산새들이 푸드드득 날아가는 모습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보는 김우진.

CUT TO

미친 듯이 달려서 산을 내려오는데 성공하는 이정출의 모습.

92. 몽타쥬 / 낮

곳곳에서 체포되는 인력거 의열단원들과 이를 밀고하는 밀정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차역 사무실 앞에서 동료들과 노닥거리던 서진돌, 일본경찰에 체포된다.
추방되어 멍한 표정으로 기차역에 앉아있던 루비크도 다른 이유를 들이대며 체포 당한다.
지국에 일부 맡겨둔 폭탄상자도 발견된다.

93. 경무국 취조실 / 낮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김우진.
김우진을 직접 심문하는 히가시. 김우진이 소지하고 있던 이정출의 총을 본다.

히가시

(일) 설마 이정출을 믿지는 않았겠지. 너를 넘긴 게 이정출이야.

김우진

.....

히가시

(일) 폭탄은 어디 있지?

김우진

(일) 니 발 밑에 있다.

히가시

(일) 기백은 살아있군. 그게 얼마나 갇힌 모르지만. 정채산을 넘겨. 그러면 나갈 수 있다. 어차피 너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

김우진

(일) (웃으며) 너는 절대 나한테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거다.

히가시, 김우진이 만만치 않게 나오자.

호흡을 가다듬고.

히가시

(일)연계순이 애인이었나?

김우진

??

히가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니들은 니들의 밀정 때문에 모두들 잡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얼굴도 몰랐던 연계순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연계순을 찍은 이 사진 때문이었어.
자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거든데...

히가시가 연계순이 찍힌 전단지의 사진을 김우진에게 보여주면 김우진이 찍어준 연계순 사진이다.
연계순이 자기가 찍어준 사진 때문에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우진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꺼이 꺼이 오열하며 조금씩 무너져 버리는 김우진.
히가시, 형사에게 고문을 지시한다.
잠시 후, 형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형사

(일)허를 깨물었습니다!

김우진의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눈물 뿜은 눈은 웃고 있는 것만 같다.
독한 김우진의 모습에 한방 먹은 히가시의 얼굴.
곤란한 표정으로 마른 얼굴을 손으로 문지른다.

94. 히가시의 집무실 / 낮

이제까지 차분하던 모습을 잃고 분노한 히가시가 형사들에게 화를 쏟아낸다.

히가시

(일) 폭탄을 아직도 못 찾은 거야!

형사 하나가 급히 들어온다.

형사

(일) 이정출이 잡혔습니다.

95. 경무국 취조실 / 낮

피폐한 물결의 이정출, 찢룩거리며 취조실로 들어선다.
이정출, 자기가 예전에 취조했던 자리에서 고문 도구들을 바라본다.
이정출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96. 경성지방법원 / 낮

열 명의 변호인단과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과 사람들. 뜨거운 관심 속에 공판이 진행된다.
법정에 들어서는 의열단원들의 수척해진 물결이 말이 아니다.
가장 안쓰러운 연계순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다.
그 이쁜 얼굴에 이정출이 지진 인두자국이 흥측하다. 김우진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이정출이 법정에 들어서자 웅성웅성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출이 들어서며 김우진을 본다. 연계순의 상처 난 얼굴을 바라보느라 걸음을 지체하자 호송경찰이 잡아끌며 재촉한다.
공판이 진행되고, 증언석에 서는 후배형사와 일본정보원.

후배 형사

이정출 경부가 김우진을 위해 총독부 여행증을 위조 발급했습니다.

일본비밀경찰

(일) 이정출은 상해에서부터 김우진에게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정채산에게 포섭되어 의열단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일그러지는 이정출.
방청석에 앉은 히가시를 본다. 히가시의 표정은 얼음 같다.
너무도 억울한 얼굴로 법정진술을 하는 이정출.

이정출

저는 김우진으로부터 폭탄을 넘겨받아 경찰부에 압수시키려 일부러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경성에서 나머지 실행자가 오면 한꺼번에 체포하러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시끄러워진다.
이정출은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히가시를 보지만 소용없다.

변호사 포시진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일부러 경관을 공산당에 가입케 하고,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잡으려 한 것은 정치 도덕상 가만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출, 비겁하게 눈물을 질질 짜며 항변한다.

이정출

저는... 경찰 관리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 장차 경시까지 시켜 줄 거란 상부의..... 그런 믿음 속에 적진에 침투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경찰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의열단원이 아닙니다!
저는 김우진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지 그의 동지도 친구도 아닙니다!

변호사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의열단임을 지목 할 수가 있겠소.

방청석 웅성웅성 거리고 김우진 눈을 질끈 감는다.

이정출

네 있습니다 !!!

판사

지목해보시오.

이정출은 천천히 돌아서 쪽 나란히 서있는 의열단 앞에 서서 하나 하나씩 지목한다.
서진돌 의열단! 심상봉 의열단! 허철주 의열단! 이정출의 목소리가 떨어지지만 확신이 차고 우렁차다.
그러다 연계순 앞에 서면 이정출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린다. 히가시가 유심히 바라본다.
이정출 연계순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며 고개를 돌려버린다.

방청석 웅성거리고.

이정출 다시 힘겹게 울먹임을 견디며 겨우 똑바로 말한다.

연계순!! 의열단!!!

마지막으로 김우진 앞에 서서 두 사람이 마주본다. 이정출, 김우진을 바라본다. 조금씩 호흡이 가파온다. 그러더니 김우진!! 이자가 의열단의 경성 우두머리입니다!!!!

찬물을 끼여진것 같은 정적, 바로 그때 누군가 매국노 일본 앞잡이 라며 소리치며 일어서면 일본경찰이 뛰어와 그 사람을 끌고 나간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며 봉을 두들기고 히가시는 일어서 나간다.

97. 서대문 형무소 / 낮

간수에 끌려 이정출이 지나가자 방에 있는 독립인사들이 경멸 어린 비난을 던진다.

독립인사

일본의 개가 왔구만!

이정출, 두려움 가득한 눈길로 방에 갇힌다.

사방이 막힌 방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견디는 이정출.

98. 김우진의 독방 / 낮

간수가 문을 두드리더니 조용히 일러준다.

간수

연계순이 오늘 아침 죽었소.

잠시, 열이 나가 앉아 있는 김우진.

그리고는 아직 상처가 여물지 않은 잘린 혀로 짐승처럼 오열한다.

형무소를 울리는 김우진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

99. 이정출의 독방 / 낮

바닥에 쪼그리고 누워있는 이정출. 문이 열린다.

100. 형무소 입구 / 낮

몰라보게 상한 얼굴로 찢뜩거리며 형무소 밖으로 나오는 이정출, 푸른 하늘을 눈부신 듯 올려다보는 이정출.

형무소 문이 열리며 인부가 달구지를 끌며 나온다. 아이 것보다 조금 큰 관이 실려 있다.

이정출, 그 관을 유심히 쳐다본다.

인부

여서 관 나오는 거 처음 보오?

이정출

..... 뭐 그리 작습니까.

인부

곡기 끊은 여자요. 중국에서 와서 가족도 없다하니.

이정출, 연계순의 관이 멀어져가는 걸 바라본다.

101. 이정출의 집 / 낮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다다미방에 폐인처럼 누워있는 이정출.

머리맡에는 약봉지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밖에서는 부인이 어린 자식을 업고서 돈 벌러 빨래 삶는 일을 하고 있다.

102. 경무국 히가시 집무실 / 낮

새로 온 조선인 형사가 히가시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선인 형사

(일) 특별히 접촉하는 사람은 없고.

약수를 뜨러 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

103. 산 / 낮

산을 오르는 이정출.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여기저기 산길을 찾아 다닌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이쪽저쪽을 헤매는 이정출.

해가 지는 산등성이에 앉아있는 이정출. 해가 걸린 나무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본다.

도통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이정출의 눈동자.

104. 일본경찰간부구락부 / 밤

고관대작들의 친선파티. 〈재조선검도인의 밤〉 열리고 있다. 주최자인 히가시가 손님들을 맞는데 승전장군처럼 당당하다.

도열해있는 검은 호구의 사내들 속에서 진검 시범이 벌어지고 있다.

호구 속의 얼굴들을 알 수가 없다.

히가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히가시. 누군가 그를 따라 들어간다.

호구를 벗는다. 이정출이다.

히가시

(일) 제법 푹푹했는데 옥살이가 힘들었나 보군.

독립투사라도 된 기분인가?

이정출

(일) 왜 나를 감옥에서 빼준 겁니까?

히가시

(일) 그래야 우리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넌 이제 조선의 편에도 다시는 못 서고 그 어디에도 설 수가 없다.

누구의 밀정도 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지.

이정출

(일) 왜 나왔던 겁니까?

히가시

(일) 이쪽 저쪽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인물이니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덥썩 잡아주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게 너희들의 생리잖아.

너에게 섭섭한 건 없다.

너로서는 니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너 역시 조선이라는 죽은 사자 몸을 파먹는 한 마리 벌레에 지나지 않다고.

히가시의 경멸이 이정출의 가슴을 찢는다.

히가시

(일) 그래도 여기까지 오다니 정성이 기특하구나.

그런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건가? 뭐 밀정출신이니까. 이정도야.

이정출

...

히가시

(일) 이제 자네와 난 만날 일이 없어. 아 경성내 의열단의 조직을 완벽하게 뿌리 뽑아낸 건 치하하지. 자네 덕분에. 그 덕으로 자네 목숨이 붙어있는 거겠지만. 자 이제 돌아가게.

이정출

(일) 돌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뵈 수 있겠지요. 지옥에서 라도요.

히가시

??

105. 김황섭 저택 / 밤

김황섭에게 불상을 보여주는 이정출.

김황섭, 탐욕스럽게 불상을 보다가 이정출을 본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김황섭

하기야 일본 놈에게 뺏기는 것보다야.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돌아온 김황섭.

김황섭

대신 약속해. 내 돈이 군자금으로 들어간 걸 알면 나만 피곤해지니까.
독립될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이정출

(허한 웃음) 독립이 될 것 같소, 영감은?

김황섭

너 같은 놈들이 있으니, 되기야 되겠지.

106. 인천항 / 밤

밤의 항구 뒷골목에서 커다란 여행가방을 옆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정출.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온다.

가로등 빛에 얼굴이 드러나면, 정채산을 따라 다니던 소년 선길이다. 그 새 소년에서 청년으로 변한

선길.

이정출, 그에게 폭탄이 든 가방과 돈가방을 건넨다.

선길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정출, 안타까운 눈빛을 애써 감추며 선길을 바라본다.

이정출

단장님은 잘 계시나?

선길

네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올라서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출

꼭 다시 보세.

이정출, 선길의 옷깃을 올려주며 애써 담담한 척 한다.

배 떠나는 밤바다를 바라보는 이정출의 눈동자가 회한으로 촉촉하게 젖는다.

107. 과거. 산장 / 낮

밖에 군인들이 왔다는 걸 알게 된 이정출, 당황하고.

김우진, 오히려 침착하게 이정출에게 당부한다.

김우진

폭탄을 가져가.

이정출

?

김우진

내가 나가서 주의를 끄는 동안, 폭탄을 숨기쇼.

이정출

미친놈. 끝까지.

김우진

또 하나 약속합시다.
혹시. 붙잡히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로. 의열단원이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는 살아서 나가야 하니까.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하니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이정출

.....

김우진

고마웠소. 형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요.

절절한 김우진의 눈빛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눈물이 그렇게지는 이정출.

김우진

난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정출, 김우진에게 자기의 권총을 준다. 눈빛으로 그러하겠노라 약속하는 이정출.

이정출

그래. 니말대로..... 의리 없는 귀신이 돼서야 쓰겠나.

두 남자, 다시 못 잡아볼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

김우진

형, 나 궁금한것 있는데 ... 내가 상해 가기전 경성에서 국밥에 보내온 쪽지
여긴 뚫렸으니까 피하라고 상해 가 있으라고 하시모토 조심하란 쪽지
형이 보냈소? 의도가 뭐요? 처음부터 우린 같은 편이었던 거야?

이정출

그게 뭘 개떡같은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고 앉았어?
그거야 당연히 하시모토 손에 잡히기 전에 내가 잡으려고 한거지
니들 목에 걸린 포상금이 얼마데... 됐냐?

김우진

그러면 언제 부터 우리편이 되기로 방향전환한거요? 단장님 만났을 때?

이정출

방향전환? (씨익웃으며) ... 우리 밀정은 그런거없어. 웬줄알아?
밀정 인생이란게 끝없이 방향전환해야 하는거야. 그게 우리일이야. 그걸 멈추면 죽는거지. 그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곳이 내편이 되는거고 내 인생이 되는거야. 그게 언제 멈추는지 알아?
오더가 안내려올때.
언제부턴가 히가시한테 오더가 안오더라고. 하시모토에만 가는거야.
그런데 반대로 니네쪽에선 계속 오더가 들어와.
그래 난 계속 사는거지. 이유가 있다면 딱 그 이유 하나뿐야.

김우진, 말의 의중을 헤아려보려는 듯 알듯 모를듯한 표정을 짓는다.

108. 산속 / 낮

김우진이 시선을 돌려서 군인들을 몰고 가는 사이.
폭탄이 든 봇짐과 가방을 이고서 산장을 빠져나오는 이정출.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산을 뛰어 넘으며 눈발을 구른다.
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다급해진 이정출, 토굴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폭탄을 숨긴다.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정출. 해가 지는 장관을 바라보며 나무들과 새집의 모습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도망가는 이정출.
벼랑에서 때굴때굴 구르는 이정출. 다리를 다친다. 찢룩거리며 산을 내려오는 이정출.

109. 재판정 / 낮

마지막까지 비겁하게 자신은 의열단원이 아니라며 연기 하는 이정출. 김우진을 경성 의열단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는 이정출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김우진.
법정을 나가기 전, 잠깐 눈이 마주치는 이정출과 김우진. 순간, 두 남자만이 알 수 있는 눈빛을 나눈다.
알 수 없는 눈물로 반짝이는 두 남자의 눈동자.

110. 경찰 구락부의 밤 행사장.

김사희가 이정출을 만난다.
김항섭에게 받은 돈의 절반을 김사희에게 준다. 이정출에게 돈을 받고 경찰 간부 구락부의 밤 모임 뒷문을 열어준다. 가방을 들고 온 이정출 구락부 행사장 주위를 돌며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구락부 안은 벌써 히가시와 경찰 간부들이 마냥 즐거워하고 하고 있다.
북 위주 타악기를 두드리는 모던한 연주자들이 흥을 돋군다.

- 경성거리 / 마치 심장을 두들기는 듯한 타악기 연주는 계속 흐르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다.
주동성이 양복점에서 새 옷을 맞추고 있다.
가봉을 하려고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을 때 누군가 커튼을 치고 들어온다.
주동성이 양복점 주인인지 알고 뒤를 돌아보다 얼굴이 하얘진다.
박포수가 주동성의 목에 양복가위를 쫓는다.
커튼으로 주동성의 피가 뿜어지고.

111. 일본 도쿄. 천황궁 앞 / 낮

선길이 천황궁에 폭탄을 던진다.

112. 일본경찰간부구락부 / 밤

히가시가 주최하는 경찰간부 구락부의 밤. 많은 일본경찰관료들이 흥겹게 연회를 즐긴다.
연주단들의 타악기 연주가 클라이막스를 향할때. 축배를 드는 히가시.
그런데 저 끝 멀리서 이정출이 히가시를 바라보며 씨익 웃으며 축배를 드는 모습을 본다.
히가시가 놀라 멈칫한다. 이정출, 히가시를 보며 멈추지 말고 쭈욱 들이키라고 손짓한다.
그때 히가시가 이상한 기분에 술잔을 내려놓자 사람들 모두 어리둥절한다.
이정출 그때 동시에 다른 손에 든 기폭장치를 들어 히가시에게 보여준다. 히가시가 기폭장치를
확인하고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동시에.
엄청난 폭음과 함께 구락부 연회장이 엄청 크고 시뻘건 구름불이 확 피어오른다.
유리창이 깨지며 피투성이가 된 채 떨어지는 이정출.
활활 이는 불길 속에 저승사자처럼 찢룩이며 걸어 나오는 이정출.

113. 서대문 형무소 / 낮

감방마다 어수선한 소리로 들썩거린다. 간수가 조용히 하라며 곤봉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지른다.
독방에 갇혀있는 김우진.
그의 방문에 대고 지나가는 간수가 조용히 일러준다.

간수

병어리 선생. 들었소? 일본 천황궁에 폭탄이 터졌소.
같은 시간에 일본구락부에도 폭탄이 터져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더군.

김우진, 그 소리에 고개를 들고 창가를 본다.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 얼굴을 대고 흐릿한 미소를 짓는 김우진.
김우진이 기댄 벽에 손가락으로 긁어서 써 놓은 글귀.
“뜨거웠던 벚들. 이곳을 다녀가다. 1923년”

인서트) 태극기로 감싼 폭탄.

폭탄에 불이 붙고. 쿵! 하는 가슴을 뚫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난다.